

Magazine

새벽종

2023 01·02 제6호

함께 또 같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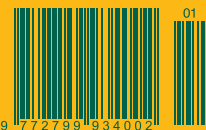
새벽종

2023 01+02 제6호

 새마을운동중앙회



새벽종



ISSUE NO.6
ISSN 2799-9343



〈새벽종〉은 친환경 종이와 콩기름 인쇄로 제작되어 지구 환경 보호에 앞장섭니다.

새마을운동중앙회

Prologue

1970년부터 지금까지 새마을운동은 구호가 아닌
직접 행동하고 실천하면서 따뜻한 세상을 만들어왔습니다.
내가 아닌 우리를, 지금이 아닌 미래를 위해 나눔과 돌봄을 실천하고
함께 사는 따뜻한 세상을 만드는 것, 이것이 새마을운동의 역할입니다.
우리는 이제 '다시 새마을운동, 세계와 함께'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는 새로운 새마을운동으로
모두가 함께 잘사는 사회를 만들어가고자 합니다.



Contents

2023 01+02 제6호



06 **신년사**
 새마을운동중앙회 회장 광대훈
 새마을지도자중앙협의회 회장 김종복
 새마을부녀회중앙연합회 회장 조승희
 직장·공장새마을운동중앙협의회 회장 전문수
 새마을문고중앙회 회장 박경수

12 **어울림**
 다시 새마을운동, 세계와 함께

16 **울림**
 2023 새마을운동 대담

20 **누림**
 도원이 있다면, 지금 여기
 - 강원도 정선 여행



24 **새마을 아카이브**
 대통령과 정부가 적극 지원한 새마을운동

26 **새마을 사람들 1**
 마음을 잇다, 봄날을 열다
 - 2022 우수 마을공동체 경진대회
 대구 달서구 '봄날' 마을공동체

30 **새마을 사람들 2**
 작은도서관에서 피어나는 문화의 힘
 - 대통령기 제42회 국민독서경진대회
 새마을문고 부산광역시지부

34 **대학새마을동아리**
 미래를 위한 새싹을 피우다
 - 2022 전국대학새마을동아리 연말 평가대회
 순천대학교 새마을동아리 '새순'

38 **지구촌새마을운동**
 멈추지 않는 내일을 위해
 - 라오스 새마을운동 현지연수 새마을교육

40 **슬기로운 탄소중립 생활**
 탄생 ACT: 탄소중립 실천사례 후기
 - 전북 익산시 김미애
 - 대구 달서구 조민정



44 **중앙회 소식**

46 **시·도 소식**

48 **현장은 지금**

58 **새마을 통통통**

발행일
 2023년 2월 16일

발행처
 새마을운동중앙회

발행인
 광대훈

기획
 새마을운동중앙회 홍보실
 T. 031-620-2371~4
 F. 031-620-2379

편집·디자인
 (주)홍커뮤니케이션즈
 www.hongcomm.com

광고·구독·주소변경
 T. 031-620-2373
 magazine@saemaul.or.kr

본지에 게재된 저작물의 무단 전재 및 재배포를 금지합니다.

QR코드를 스캔하시면
 매거진 <새벽종>을
 휴대기기에서도
 간편하게 보실 수
 있습니다.



Magazine



Webzine

위기를 기회 삼아 대도약하는 원년으로 만들 것



존경하고 사랑하는 새마을가족 여러분!

2023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지난해는 나라 안팎으로 어려운 일이 많았지만 열정과 헌신을 다하신 새마을가족 덕분에 잘 견뎌내고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새로운 희망을 염원하며 맞이한 2023년 올해의 세계 경제전망은 그리 밝지만은 않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도 1.6%에 그칠 것이라고 합니다. 경제가 어려워질수록 가장 큰 사회적 문제는 취약계층이 증가하고 사회안전망이 무너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갈수록 심각해지는 기후위기와 저출산, 고령화문제도 우리가 당면한 현실입니다.

새마을운동이 처한 상황도 녹록치 않습니다. 먼저, 새마을운동의 추진 동력이 많이 떨어져 있어 새로운 동력을 확보하는 것이 시급합니다. 새마을운동의 내실을 더욱 다지고, 새로운 도약을 위하여 활력이 넘치는 역동적인 동력 확보에 역점을 두어야 합니다. 이를 통해 국가 발전에 기여하고, 지방소멸의 위기를 극복해 진정한 지방시대를 열어 가는데 새마을운동이 주도적인 역할을 해낼 수 있습니다.

새마을운동이 우리 사회와 다소 유리되어 있다는 것도 매우 우려스러운 일입니다. 국내 최대 조직력을 갖추고, 180만 새마을 회원들이 전국 방방곡곡에서 남들이 하지 않는 곳은일을 도맡아 봉사하는데도 불구하고 제대로 된 평가와 인정을 받지 못하는 것은 매우 안타까운 일입니다.

자랑스러운 새마을지도자와 회원 여러분!

2023년은 새마을운동이 처한 대내외 위기를 기회 삼아 '다시 새마을운동으로 세계와 함께 대도약'하는 원년으로 만들어갑시다. 새해에도 많은 위기와 도전이 있겠지만 지금의 대한민국을 만드는데 앞장 서 온 새마을운동에는 위기 때마다 어김없이 우리를 구원했던 근면, 자조, 협동의 새마을정신이라는 유전자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룩한 경제발전과 민주화, 그리고 새마을운동이 지닌 가치와 성공 경험을 국제사회와 공유하고 보편적인 가치로 만들어 갈 때 비로소 국격이 높아지고 존경받는 나라가 될 것입니다.

이를 위해 새마을가족 여러분께서는 어려운 이웃을 향해 따스한 손길을 내밀고,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며 지혜를 배우는 겸손한 자세로 각자의 자리에서 책임과 소명을 다해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새마을운동이 이 막중한 역할을 반드시 잘 해내리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3년 만에 울려 퍼진 제야의 종소리를 들으며, 대립과 분열과 반목이 아닌 우리 모두가 모두에게 용기와 희망을 주는 새해이기를 진심으로 염원합니다.

끝으로 새해 새마을가족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평안이 가득하기를 빕니다.

2023년 1월

새마을운동중앙회 회장 **곽대훈**

소통과 화합으로 함께 비상하는 한 해로 만들어 나갈 것



새마을지도자중앙협의회 회장 **김종복**

존경하는 새마을지도자 여러분!

계묘년 새해 아침이 밝았습니다.

새해에는 우리 새마을지도자 가족께서 소망하시는 모든 일이 성취되기를 바라며, 전국 새마을운동 현장 곳곳에도 희망과 도약의 기운이 충만하기를 기원합니다.

지난 한 해는 유난히 피해 복구와 구호의 손길이 필요한 곳이 많았습니다.

그럴 때마다 녹색 조끼를 입은 새마을지도자 여러분들이 늘 함께 해 주셨습니다.

강원도와 경북지역의 산불 현장, 중부지역의 집중호우 현장, 그리고 태풍 힌남노로 인한 피해 현장에도 새마을지도자들의 헌신적인 봉사가 있었습니다.

장기화하는 코로나19 사태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우리 새마을지도자 모두는 각자의 자리에서, 그리고 보이지 않는 현장 곳곳에서 이웃과 마을, 지역을 넘어, 더 나아가 국가를 위해 노력했습니다. 이러한 새마을지도자들의 헌신과 열정에 많은 국민이 새마을지도자를 가장 헌신적인 공공의 지도자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매우 중요한 인적자산인 새마을지도자와 회원

확충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열린 조직문화를 만들어 청년 세대를 유입·육성하여 보다 젊어지는 새마을운동이 되어야 합니다. 나 자신만이 아니라 우리 지역, 우리나라를 자랑스럽게 만드는 새마을운동을 위해 어렵고 힘든 일이지만 한마음이 되어 동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새마을지도자중앙협의회는 다시 뛰는 새마을운동, 세계와 함께하는 새마을운동을 목표로 삼고 무너진 공동체를 회복하기 위해 더불어 살아가는 삶의 가치를 확산시키고, 나와 우리, 마을과 국가, 국가와 세계를 잇는 공동체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이웃과 지도자들에게 열린 마음으로 다가가고, 소통하는 조직 문화가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더욱더 노력하겠습니다.

번영과 행운의 상징인 토끼의 해를 맞아 소통과 화합으로 함께 비상하는 한 해로 만들어 나갑시다. 새마을가족 여러분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하고 더욱 건승하시길 기원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재도약하는 새마을운동을 만드는 마중물이 될 것



새마을부녀회중앙연합회 회장 **조승희**

사랑하는 전국의 새마을가족 여러분, 2023년 계묘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행운과 풍요, 그리고 지혜를 상징하는 토끼의 해를 맞아 여러분 모두 계획하신 바를 이루시고, 삶이 한층 더 풍요로워지길 소망합니다.

지난 한 해는 장기화된 코로나19와 중부권 기습적인 폭우에 따른 수해, 동해안 산불, 10.29 참사 등 국민 모두에게 극심한 피해와 정신적 고통을 준 그 어느 때보다 다사다난했던 해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새마을가족 여러분께서는 흔들리지 않고, 더욱 끈끈하게 뭉쳐 많은 활동을 전개하셨습니다.

특히 새마을부녀회 회원분들께서는 이처럼 어려운 가운데에도 어려운 이웃과 다문화가정을 위한 활동, 캠페인 전개, 고부갈등 해소, 사랑의 감장 나누기 등 실로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여 지역 내에서 도움이 필요한 이웃에게 제일 먼저 다가가 손을 내밀어 주었습니다. 또한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장바구니 사용하기, 자원재활용품 수집하기, 나무 심기 등 탄소 발생 저감 활동을 전개하여 지구오염으로 인한 기후변화를 조금이라도

억제할 수 있도록 작은 일부터 실천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새마을운동은 새로운 시대의 흐름에 맞추어 MZ세대를 아우르는 젊은 지도자를 영입함은 물론, 기존 지도자들의 사기진작과 예우에도 심혈을 기울여야 합니다. 청년 세대의 유입은 기존의 지도자들에게 참신함과 신선함을 더해 다시 재도약하는 새마을운동을 만드는 마중물이 될 것입니다.

그리하면 대한민국의 발전을 이끌었던 새마을운동이 더욱 확산·발전되어, 미래의 국가발전을 이루는데 이바지하는 항구적인 운동으로 거듭날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새마을부녀회 여러분들께서 반드시 힘을 보태주셔야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께서 먼저 시작하시고, 이어서 주변 분들의 동참을 이끌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2022년 한 해, 힘든 상황 속에서도 새마을운동과 새마을부녀회의 발전을 위해 활발한 활동을 해주시고 도와 주신 새마을가족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2023년은 나쁜 기운이 모두 사라지고 가내에 사랑과 행복, 평화가 가득한 한 해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희망의 불씨를 틔워 새로운 도약을 이뤄내야 할 때



직장·공장새마을운동중앙협의회 회장 전문수

존경하고 사랑하는 새마을가족 여러분!

희망찬 2023년 계묘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를 맞이하여 여러분 모두의 가정마다 건강과 행복이 가득한 한 해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울러 지난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새마을운동을 묵묵히 펼친 새마을가족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올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는 그 어느 때보다 경기침체가 심해질 것입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지속적인 코로나19 감염병 확산, 국제원자재 가격 상승, 부동산 경기 위축 등으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은 늘어나고, 일자리는 갈수록 줄어들 것입니다.

이러한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우리 직장새마을운동은 지역 현장 곳곳에서 희망의 불씨를 틔우는 역할을 하고, 위기와 도전을 넘어 강한 의지로 변화와 혁신을 해야 합니다. 또한 직장·공장협의회 회원사는 누구보다 앞장서서 더 큰 미래를 위해 새로운 도약을 이뤄내야

할 때입니다.

‘다시 새마을운동, 세계와 함께’를 목표로 우리 직장·공장협의회는 조직의 문화를 개선하고, 노사가 서로 배려하고 연대를 강화해야 합니다. 또한, 직장 안팎의 다양한 시대의 요구에 다양한 운동으로 응답해야 합니다. 특히, 우리 직장·공장협의회는 미래의 주역인 MZ세대와의 협력을 통하여 세대 간 공감과 소통을 만들어 나가야 합니다. 단순히 구호만 외치는 것이 아닌 대학생, 청년들과 직접 교류하고 교감하는 직장새마을운동이 되어야 합니다.

새마을가족 여러분!

항상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하시고, 계묘년을 출발하는 첫걸음에 힘차게 함께 나아갑시다. 새마을운동의 발전을 위해 힘써주시는 우리 새마을가족분들께 다시 한번 깊이 감사드립니다. 가정과 직장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중점사업을 통해 품격 높은 사회를 만들어 나갈 것



새마을문고중앙회 회장 박경수

전국의 새마을문고가족 여러분!

2023년 계묘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지역 주민들에게 다양한 독서문화 공간 운영과 독서생활화운동, 문화·예술 재능기부 활동으로 문화공동체 정신을 복원하고 지역문화운동에 열정적으로 헌신해 주신 전국 독서문화운동 가족들에게 격려와 치하를 드리며 깊은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새해를 맞아 새마을문고운동은 ‘지식과 문화의 나눔, 기본이 바로 서는 독서문화운동 실천’을 목표로 생활밀착형 독서문화 공간 환경조성 및 내실화, 재능기부동아리 조성과 활동, 지역문화공동체 1특색사업 실시를 기본방향으로 국민독서경진대회, 재능기부동아리 육성, 독서지도사교육, 독서퀴즈대회, 문화의 한마당 등 중점사업을 통해 품격 높은 사회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또한 나눔·배려·연대의 실천 덕목으로 주민에 의해 주민을 위한, 주민과 함께하는 시대정신으로 새마을운동의 비전을 펼치는데 함께 하겠습니다.

새마을운동은 초창기 잘살기 운동으로 출발하여 환경개선운동, 의식개혁운동으로 추진되었습니다만 이제부터 문화 활동으로 국민이 행복해지고, 법과 질서가 바로 서는 사회, 이웃이 서로 배려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하여 새마을문고 가족이 최일선 현장에서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새마을문고가족 여러분!

올해에도 독서를 통해 가치있게 사는 행복한 삶을 이루시고 가정과 일터에서 활력 넘치는 활동으로 ‘다시 새마을운동, 세계와 함께’를 실천하는 의미 있는 한 해되시길 기원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다시 새마을운동, 세계와 함께

전 세계를 공포로 몰았던 코로나19 엔데믹 시대가 열리고 있지만 세계적인 인플레이션, 대내외적인 경제난과 안보 위기 등으로 우리는 여전히 불안의 나날을 보내고 있다. 앞친 데 덮친 격으로 기후변화로 인한 재난·재해까지 급증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에너지와 식량 안보까지 위협받고 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에게 공동체 의식이 필요하다. 혼자가 아닌 함께일 때 우리는 무엇이든 해낼 수 있기 때문이다. 과거 새마을운동으로 지금의 한국을 만들었듯 다시 한번 새마을운동의 힘이 필요할 때이다. 새로운 새마을운동으로 새롭게 변화될 2023년을 그려보자.

write. 왕보영 illust. 버리

왜 새마을운동이 필요할까

지금의 새마을운동은 과거 '잘살아보세'를 외치던 단순한 국민 운동 차원을 넘은 모든 국민의 운동이다. 우리는 위기가 있을 때마다 근면, 자조, 협동이라는 새마을정신으로 딛고 일어섰다.

과거 1990년대 외환위기 당시에는 '금 모으기 운동'의 기적을 이끌어냈으며, 특히 새마을부녀회는 '애국 가락지 모으기 운동'으로 무려 370만 돈의 금을 모은 바 있다. 2017년 12월 서해안 기름 유출 사고 때에는 절망으로 실의에 빠진 지역민과 어민들의 마음을 달랠 때, 2014년 세월호사고 때에는 진도항(팽목항)에서 유가족들의 식사를 챙기며 슬픔을 함께 나눴다.

그뿐만 아니라 2019년 강원도 산불이 발생했을 때도 피해지역 복구와 이재민 구호에 앞장섰다. 특히 지난 몇 년간 코로나19로

전 국민의 발이 묶이고 심리적 공포로 불안이 엄습했을 땐 새마을지도자들의 세심한 손길로 이웃을 보듬었다. 새마을지도자들은 283,775개소(2022년 6월 기준) 방역과 1,245,273개(2022년 6월 기준)의 천마스크를 제작하고 성금·성품 기부, 헌혈·사회적 거리두기 캠페인, 농가 농산물 판로개척 등 다양한 활동을 펼쳐왔다. 또한 지난해 3월 경북·강원 지역에 산불이 발생했을 때도, 같은 해 8월 수도권 집중호우와 태풍 힌남노로 인한 피해가 속출했을 때도 이웃을 향한 새마을회원들의 활동은 단 한 순간도 멈춘 적이 없었다.

이렇듯 재난 복구와 구호 활동, 사회가 미처 돌보지 못한 소외 계층 돌봄과 나눔엔 늘 새마을지도자들이 앞장섰다. 살기 좋은 마을을 통해 더불어 살아가는 행복한 공동체를 조성하는 것이 새마을운동의 중요한 가치이기 때문이다.



환경, MZ세대… 시대에 부응하다

전 세계적으로 가장 큰 화두는 탄소중립이다. 이미 많은 이가 알고 있듯 지구온난화로 인한 이상기후로 폭염과 한파는 물론이고 산불·홍수·해수면 상승·물 부족 등에 이르기까지 곳곳에서 기후재앙은 현실이 되고 있다.

그동안 새마을운동중앙회는 탄소중립에 대한 국민 의식을 높이고 공감을 형성하기 위해 나무 심기 운동, 화석연료 줄이기, 친환경 제품 사용, 대체에너지 사용 등의 활동을 적극 전개했다. 세계적으로 1년에 510억 톤, 우리나라만 해도 7억 3천만 톤에 달하는 온실가스를 제로로 만드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다. 또한 화석연료를 중심으로 돌아가는 경제체계를 저탄소 경제체계로 바꾸는 것 또한 역시 쉽지 않다.

우리가 탄소 저감을 위해 대단한 기술을 만들 순 없지만 조금의 노력과 수고로움을 더해 삶의 방식을 바꾼다면 더 나은 지구를 만들 수 있다. 대중교통 이용하기, 물 절약하기, 일회용품 최소화하기 등 누구나 쉽게 실천할 수 있는 '탄소중립을 위한 15가지 수칙'을 정해 숏선수범하는 것이다. 이에 전국의 새마을회원과 새마을가족은 물론이고, 가깝게는 내 주변의 이웃부터 실천할 수 있도록 홍보와 교육을 강화하고 있다.

탄소중립 외에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이 있다. 바로 다음 세대를 이어갈 청년들이다. 새마을운동의 기본정신인 근면·자조·협동은 시대가 변해도 지켜나 가야 할 소중한 가치이자 우리 삶의 근본이다. 중앙회는 미래를 이끌어갈 젊은 지도자들을 위해 전국 65개 대학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59개 대학에 대학새마을

동아리를 결성하여 질적 변화를 꾀하고 있다. 전국대학새마을 동아리 학생들은 농촌 일손 돕기, 플로깅, 환경정화 활동, 플리마켓 등 각 지역에 맞춤형 봉사활동을 통해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 이처럼 함께 살아가는 따뜻한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서는 징검다리 역할을 해줄 청년들의 참여가 중요하다. 마칩 복고, 레트로 문화가 이슈인 가운데 새마을운동은 시대를 관통하는 진짜 뉴트로 그 자체다. '나 혼자'가 아닌 '우리 이웃, 우리 마을'이 함께 잘 살기 위한 새마을정신이 캠퍼스에서부터 시작되어 퍼진다면 조직이 보다 젊어질 것이며, 새마을 조직의 세대 간 원활한 소통은 물론 화합의 장이 열릴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2023년을 열어갈 새로운 새마을운동

2023 새마을운동은 '함께 사는 따뜻한 세상', '지속 가능한 지구 환경 보전', '지구촌 공동번영 구현', '창의적·혁신적 새마을 지도자 양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먼저 건강하고 행복한 공동체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새마을 사회 안전망으로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주민 참여형 '좋은 이웃 만들기' 사업을 확대할 계획이다. 또 새마을문고를 통한 독서 생활화를 장려하여 창조적 지역문화는 물론 성숙한 자유민주 시민의식을 높이려 한다. 그뿐만 아니라 세대, 지역, 도농 간 교류 협력을 확대하여 전국의 새마을지도자들을 통해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재난·재해 예방 활동도 적극 펼쳐 나갈 예정이다. 두 번째로 탄소중립 실천과 연대 강화이다. 곳곳에서 기후변화로 지금껏 겪어보지 못한 자연재해가 나타나는 가운데, 지금

2023년은 새마을운동뿐만 아니라 국내외 사회가 처한 위기를 기회 삼아 '다시 새마을운동으로, 세계와 함께' 도약하는 원년으로 만들어가는 것이 목표이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친환경 생활을 실천하는 것이다. 불편하지만 지구를 위한 생활이 습관화될 수 있도록 정착시키는 캠페인을 진행하는 것은 물론 자원재활용의 활성화로 '순환 경제'의 중요성을 홍보할 계획이다. 또한 산림, 해양, 토양 등 자연·생태를 보호하고 관리하는 일에 앞장서고자 한다.

세 번째는 새마을운동의 세계적 확산이다. 원조 받는 나라에서 세계 10위권에 드는 경제 강국으로 성장한 대한민국의 경험은 많은 개발도상국의 모범사례가 되었다. UN과 OECD 등 국제 기구는 새마을운동을 '성공적인 지역개발모델'로 인정하고 있으며, 개발도상국은 지속적으로 새마을운동의 전수를 요청하고 있다. 이에 지구촌새마을 시범사업을 현지 맞춤형으로 추진하고 사업관리에 더욱 내실 있게 하고자 한다. 또 외국인 새마을교육 내용의 다양화와 교육의 기회를 확대하고, 대륙별 거점 국가 시범운영하는 등 국제 파트너십도 강화할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새마을운동 추진역량 강화이다. 회원단체와 사회 단체와의 연대와 협력을 강화하여 새마을운동의 확산과 번영에 앞장서고 청년층 참여 확대를 통한 세대 간 소통을 강화, 해외 봉사단 운영으로 새마을운동의 세계화에 물꼬를 트고자 한다. 이를 통해 내가 아닌 남에 대한 배려와 존중으로 건전한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여 무너진 공동체 정신을 회복하는 동시에 새마을운동을 전개하는 이들이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하려 한다. 2023년은 새마을운동뿐만 아니라 국내외 사회가 처한 위기를 기회 삼아 '다시 새마을운동으로, 세계와 함께' 도약하는 원년으로 만들어가는 것이 목표이다. 사회적 갈등 해소와 공동체 의식 회복을 위한 '사회적 자본 구축', 지속 가능한 발전을 통한 '지구촌 공동번영'을 위해 구호가 아닌 직접 행동하고 실천하면서 따뜻한 세상을 만드는 것. 그것이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새마을운동의 역할이다. ↘

2023 새마을운동 대담

새마을운동은 지난 53년간 가난과 위기를 극복하고 대한민국을 선진국 반열에 올리는데 함께 했으며, 사회 곳곳에 희망을 밝히는 등불이 되어왔다. 2023 새해를 맞아 새마을운동중앙회는 국민에게 공감과 지지를 받는 새마을운동을 만들어가기 위해 각계 전문가와 함께 새마을운동이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과 목표를 점검하고 토론하는 시간을 가졌다.

write. 왕보영 photo. 이민희

Q – 2023 새마을운동 추진 방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장세정 새로운 비전인 '다시 새마을운동, 세계와 함께'에 공감합니다. 2021년 기준으로 우리나라 1인당 국민소득은 3만 5천 달러를 돌파했습니다. 1인당 국민소득이 1만 달러만 넘어도 물질적인 만족에서 오는 행복감은 충족됩니다. 과거 '양적, 물질적 잘 살기'가 목표였다면 지금은 '삶의 질 차원에서 잘 살기'가 필요할 때입니다. 고독사나 자살(극단적인 선택) 등은 행복의 요건 중에 물질적문제도 있었지만, 질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생기는 사회 문제입니다. 새마을의 기본정신인 근면, 자조, 협동의 소중한 의미가 많이 퇴색했습니다. 다시 새마을운동의 정신을 살리고 이 운동이 우리 사회에 여전히 유효하고 필요하다는 것을 알려야 할 때입니다.

김 선 현재 새마을운동은 '과거 계승'과 '세계적 도약'이라는 두 가지 과제에 직면한 것 같습니다. 과거를 계승한다는 것은 전통을 살리고 어떻게 새로운 세대와 소통할 것인가의 문제이고, 세계로의 도약은 우리가 경험한 특별한 새마을운동을 세계에서 보편적으로 활용될 수 있게 하는 고민입니다. 이 특별함과 보편성이 앞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이자 도전인 것 같습니다.
한도현 전 세계적으로 공동체 문화 조성이 화두입니다. 새마을운동 역시 건강하고 행복한 공동체 문화 조성을 핵심과제로 내세운 부분이 반갑습니다. 새마을운동은 전국 읍면동 단위까지 조직이 활성화되었습니다. 창업이나 취업 등 대부분의 지원이 수도권에 집중해 있습니다. 새마을운동의 인프라와 과거 경제성장을 이룬 혁신적인





“지방소멸시대 극복 위한 새마을운동의 방향과 역할 재(再)정의”

지방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교류와 연대
다각적인 사업추진으로 주민참여 확대
청년세대, 청소년 등의 참여 기회 부여

발상 등을 활용하여 지방에서도 우리 시대가 안고 있는 많은 사회문제해결에 도움이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노진선 새마을운동은 전 국민이 근면하고 스스로 노력하고 협동해 국가적인 위기를 극복하고 선진사회로 가는 과도기에 전 국민의 참여를 이끌어냈습니다. 새마을운동의 시대정신인 나눔, 배려, 연대가 사랑의 열매와도 일치해 반갑습니다. 요즘 사회는 국가나 단체가 나서서 시민을 이끌어가기보다 뒤에서 적극 지원하며 연대하는 것이 운동 활성화에 더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Q – 새마을운동의 핵심과제에 대해 구체적인 의견과 조언을 주신다면요?

장세정 과거 우리는 물질적 성장에 집중했습니다. 그러나 시대 변화에 따라 사회적 문제도 다각화되고 있습니다. 특히, 도시와 농촌 격차 문제, 지방 소멸 문제 등에 대해서는 많은 고민을 해야 합니다. 특히 귀농, 귀촌하는 청년들과 농촌에 있는 주민을 연결하면 새로운 관계가 형성될 것입니다. 도시에서는 구도심 지역에서 이웃이 소외되는 문제가 많습니다. 농촌과 도시, 구도심과 도심문제 등 지역균형을 위해 노력 해주면 좋겠습니다.

노진선 '새마을 사회안전망으로 돌봄 사각지대 해소'에 공감하는 바가 큼니다. 코로나19를 겪으면서 소외된 이웃의 문제가 화두가 됐습니다. 사회 곳곳에 촘촘하게 연결된 새마을운동 조직을 통해 사회문제의 해소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이웃 만들기' 사업은 주민들이 자발적인 참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동네의 문제를 면밀히 살펴보고 주변 단체들과 연대하여 참여할 수 있는 주제를 선정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김 선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해 내세운 '환경'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환경이라는 것은 개인을 대상으로 하면 성공 확률이 낮고, 지역사회에만 그치면 정책 영향력이 적어 파급력이

약합니다. 생명존중과 지역사회 공동체를 지향하는 새마을운동이 환경을 위한 운동을 함께 해나간다면 다음 세대에도 어필할 수 있는 운동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한도현 저는 농촌을 연구하면 도시는 따라온다고 종종 말합니다. 마을 단위까지 뿌리내린 조직이 새마을단체의 강점입니다. 중앙, 지방 등의 다양한 단체와 협력해 도시-농촌 간 교류에 적극 나서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또 서울로만 집중된 국내 청년들의 시야와 사고의 폭을 넓히기 위해 지방의 청년들을 적극 참여시키는 것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 새마을사업사업 국가와 지방의 청년들의 교류를 넓혀 다양한 경험과 자신감을 쌓을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적극 나서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Q – 살기 좋은 마을은 사회 안전망과도 연결됩니다. 새마을운동이 지역 주민들의 요구와 공감을 얻으며 사회 안전망을 공고히 하기 위한 조언을 해주신다면요?

노진선 지역의 사회 안전망을 더 공고히 하기 위한 방법을 찾거나 새로운 문제들을 발견하기 위해서는 주민들과의 밀착형 소통이 필요합니다. 특히 해당 지역에서 전문적으로 봉사하는 이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제 3자의 입장에서 이 지역의 문제점이나 해결 방법 등을 객관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지역과 기관에서 잘하는 점은 서로 본받고 소통하면 시너지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김 선 한국사회는 학교, 학군을 중심으로 사회나 상권이 형성되고 있습니다. 교육이 중심이 되는 사회다 보니 학교가 지역사회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가를 고민하고 관심을 두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학교와 학생들과 함께하는 운동이 확산이나 영향력을 고려해서 관련된 사업을 고민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Q – 젊은 새마을운동을 만들기 MZ세대 참여 방안에 대해 조언을 듣고 싶습니다.

한도현 젊은 세대를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을 적극 활용하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청소년을 위한 캠프라든지 그들의 시각으로 새마을운동과 관련된 콘텐츠를 생각해 유튜브나 SNS에 올릴 수 있도록 하는 방법도 좋겠습니다.

김 선 홍보 관련해서는 가끔 언론이나 TV에 나오는 새마을운동은 과거의 향수를 불러일으키는 쪽이 강합니다. 향수마케팅 보다는 새마을운동과 결이 맞는 인플루언서나 셀럽분들과 함께 새로운 새마을운동에 대해 어필하고, 그들이 충분히 새마을운동에 대한 호감과 이해도가 상승했을 때 새마을운동의 역사에 대해 알려줘도 늦지 않을 것 같습니다.

장세정 홍보 차원에서 이전과는 다른 기획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방송 프로그램이든, 토크쇼든, 영하든 보고 나니 '아 이런 것이 새마을운동, 새마을정신, 새마을지도자구나'라고 자연스럽게 녹아들게 하는 방법도 좋겠습니다.

노진선 미래세대를 여는 청소년 봉사단이나 대학생 봉사단 같은 부분을 검토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새마을운동 취지에 맞는 젊은 셀럽을 홍보대사로 활용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Q – 지구촌 새마을운동에 대한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김 선 지역사회 공동체성이라는 것은 도시보다 농촌이 앞서 있고 농촌 지역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개발도상국에서는 대체로 공동체성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공동체성을 강조하는 새마을운동이 세계화운동을 어떻게 전개할 것인가에 대한 도전 과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분명 성공한 새마을운동만의 공동체성도 있겠지만 이미 그 나라에 맞는 좋은 공동체문화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새마을운동을 이식하는 것이 아니라 각 국가 간 공동체 문화를 연대했을 때 더 큰 시너지가 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장세정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는 세계가 환호하는 매력 국가 반열에 들어섰습니다. 새마을운동 역시 이러한 흐름을 탄다면 세계화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한국문화에 관심을 두는 사람들은 유럽 등 선진국에도 많습니다. 그들이 한국어를 가르치는 '세종학당'에 줄을 선다고 합니다. 한국학, 한국어를 배우는 과정에서 한국이 지금처럼 발전하는데 기여한 새마을운동에 대해 더 잘 알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자료를 제공하는 등의 아이디어를 낼 수도 있겠죠.

Q – 추가로 해주실 말이 있다면요?

한도현 새마을운동에 관해 얘기를 나눌 수 있는 대화 창구를 다양화하면 좋겠습니다. 중·고등학생과 대학생을 물론 계층과 단체들의 의견을 주기적으로 들을 수 있는 프로그램이나 간담회가 상시화 됐으면 합니다.

장세정 시간이 흐를수록 새마을운동에 대한 오해나 정치적 논쟁은 잦아들고 새마을운동 자체의 기여와 가치에 대한 본질적인 평가를 받는 시대가 올 것입니다. 과거의 평가에 연연하지 말고 앞으로 국민과 함께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찾아나가기다 보면 지금 보다는 더욱 친근한 운동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김 선 '인지도 조사'를 통해 새마을운동의 현재를 체크하고 이어나갈 것과 변화할 것을 점검해보는 것을 제안 드립니다. 매년 표본을 잡아서 조사하고 분석하는 것을 이어 나간다면 평가에 대한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더 나은 새마을운동을 만들어 나가는 바탕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노진선 정기적으로 우수 사례를 발표하거나 서로 벤치마킹할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자리가 자주 마련될수록 서로 소통하려는 노력을 적극적으로 하게 되고 모임이 활성화되면 모범 사례가 더 많이 나오게 될 것입니다. 🔄



김선 굿네이버스 국제사업본부장
국제개발 NGO인 굿네이버스에서 2000년부터 일하고 있으며, 현재 국제사업을 총괄하는 본부장으로 일하고 있다. 2013년 행정안전부 새마을운동 자문위원으로도 활동한 바 있다.



노진선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나눔문화연구소장
'사랑의열매'로 익숙한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나눔문화연구소장으로 일하고 있으며, 나눔문화 기반구축, 기부환경 및 제도분석, 지역사회복지의제 등을 연구하고 있다.



장세정 중앙일보 논설위원
중앙일보 공채기자로 입사해 사회·문화·국제부 기자, 베이징 특파원, 국제부·정치부(외교안보팀장) 사회부·중앙선데이 차장을 거쳐 현재 논설위원(부국장)으로 일하고 있다.



한도현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대학원교수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대학원 교수로 재직 중이다. 저서로는 <500년 공동체를 움직이니 유교의 힘>, <에포컬 모멘텀>, <이주노동자들의 권익과 시민공동체> 등이 있다.

도원이 있다면, 지금 여기

강원도 정선 여행

정선군 정선읍은 고려 때 도원(桃原)이라 불렸다. 그 풍광이 얼마나 수려했으면 '이상향', '별천지'를 뜻하는 도원이라 칭했을까. 백두대간 중심에 있는 정선은 천혜의 자연과 그로부터 오는 힐링, 눈으로 보고 몸으로 즐기는 다채로운 재미까지 무엇 하나 놓치지 않은 채 관광객을 맞이한다.

write. 왕보영 photo. 김병구

오롯이 즐기는 정선, 가리왕산 케이블카

가리왕산, 각희산, 괘병산, 노추산, 두위봉, 함백산까지... 백두대간의 중심에 있는 만큼 어느 곳으로 시선을 놓아도 드넓은 산이 푸른 하늘 아래 병풍처럼 펼쳐져 장관을 이룬다. 특히 겨울이면 솜털 같은 하얀 눈꽃이 온 세상에 내려앉아 전국의 등산객들의 마음을 들썩이게 한다. 일 년 중 이때만 누릴 수 있는 특권이다. 다행일까. 늦게까지 겨울이 이어지는 겨울 왕국답게 하얀 눈꽃을 다른 곳보다 조금 더 붙잡고 천천히 아끼며 즐길 수 있다. 멀리서 보는 것도 좋지만 제대로 즐기려면 가까이 가야 한다. 등산이 아니더라도 정선의 겨울을 편하게 즐길 수 있는 방법, 바로

가리왕산 케이블카다. 지난 1월 오픈한 케이블카는 왕복 20분이면 가리왕산 하봉 정산까지 편하게 오르내릴 수 있다. 정선의 허파이자 자연이 준 보물인 가리왕산을 조망하며 정상에 내리면 원시림에 가까운 생태를 몸소 느낄 수 있다. 선조들은 이 풍경을 보고 '푸를 벽(碧)자를 써 벽파령이라 불렀다. 산맥이 겹겹이 둘러싸여 마치 푸른 파도가 치는 듯한 모습을 표현한 것이다. 겨울이면 하얗게 핀 상고대를, 운이 좋으면 산 위로 웅덩이처럼 펼쳐진 운해, 밤이면 쏟아지는 별과 은하수까지. 계절, 날씨, 시간에 따라 시시각각 변하는 자연의 웅장함은 단 한 번도 같은 적이 없기에 가리왕산은 늘 새롭고 또 황홀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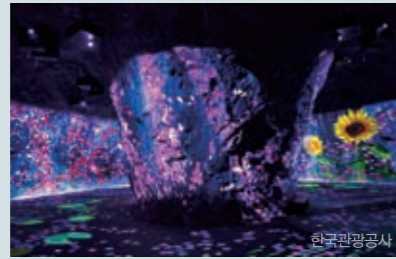
이곳만은 꼭! 정선군새마을회가 추천하는 정선 여행



가리왕산 케이블카

지난 2018 평창동계올림픽 알파인 경기가 개최되었던 가리왕산 곤돌라 시설을 이용해 케이블카 운영을 시작했다. 특히 가리왕산의 진풍경을 자아내는 일출과 일몰을 편하게 조망할 수 있는 해넘이, 해맞이 케이블카를 운영해 인기다.

- 📍 정선군 북평면 중봉길 41-35
- ☎ 033-560-3467



화암동굴

과거 금을 캐던 천포광산으로, '금과 대자연의 만남'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테마형 동굴로 단장했다. 금광맥 발견부터 채취, 생산 및 쓰임까지 이르는 전 과정의 자연과 진시를 통해 광산 개발의 역사를 배울 수 있다.

- 📍 강원도 정선군 화암동굴길 12
- ☎ 033-560-3410



아우라지

평창과 삼척에서 발원한 두 물줄기가 어우러지는 곳이라 하여 아우라지라 불리는 이곳은 정선아리랑 '애정편'의 발상지이기도 하다. 청량리에서 운행하는 정선 아리랑열차나 아우라지 줄배 등 이색체험을 즐길 수 있다.

- 📍 정선군 여량면 여량리 201-2
- ☎ 1544-9053



정선아리랑시장

1966년 문을 연 시장은 매월 2, 7일로 끝나는 날 및 토요일에 장이 서는 오일장이다. 자연산 나물과 약초, 직접 재배한 농산물을 구입할 수 있으며 곤드레나물밥, 콧등치기 등 향토 음식도 맛볼 수 있다.

- 📍 정선군 정선읍 정선로 1359
- ☎ 033-563-6200



만항재

산줄기가 많은 강원도에는 지역과 지역을 이어주는 고갯길도 많다. 만항재는 정선과 태백, 영월을 잇는 고개로, 정상이 무려 1330m에 이른다. 우리나라 포장도로가 놓인 고개 가운데 가장 높은 지점에 있다.

- 📍 정선군 고한읍 함백산로 1109
- ☎ 1544-9053



정암사

신라 시대(645년)에 자장율사가 창건한 정암사는 우리나라 5대 적멸보궁 중 한 곳이다. 정암사의 상징인 수마노탑은 국보 제332호로 지정되었다. 바람이 드나들 때마다 탑에 걸린 풍경이 흔들리며 고요를 깨운다.

- 📍 정선군 고한읍 함백산로 1410
- ☎ 033-591-2469

강원 정선군새마을회

소개 부탁드립니다.

정선군새마을회는 최양진 회장을 비롯한 김낙균 협의회장, 김학순 부녀회장, 박봉의 문고회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9개 읍면 협의회와 부녀회가 활동하고 있습니다. 기타 조직으로 후원회와 새마을교통봉사대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저희는 조직 활성화를 위하여 9개 읍면에 새마을 사무실과 집기, 현향판을 지원했습니다.

주요 활동으로는 탄소중립 실천을 위한 자원재활용운동, 나라사랑 태극기 게양 운동, 더불어 함께 사는 공동체 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지난 2022년 정선군새마을회의 주요 활동 내용은 무엇이 있나요? 또 여러 새마을운동 중 정선군 새마을회에서 특화 또는 주력으로 하고 있는 사업 내용은 무엇인가요?

우리 새마을회는 새마을운동 중 탄소중립운동에 중점을 두고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지자체와 협조하여 아이스팩 수거함을 설치하여 수거와 세척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2021년부터 2년여에 걸쳐 투명 페트병 분리 배출 정착을 위하여 투명 페트병 모으기 경진대회를 진행하였으며, 올해에는 투명 페트병을 처리할 수 있도록 페트병 파쇄기 설치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정선군은 연중 많은 관광객이 찾아오는 지역으로 정기적인 새마을대청소 및 하천정화 활동을 실시하고, 매월 첫째, 셋째 주 수요일에 읍면에 설치된 클린하우스에서 쓰레기분리수거 활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정선군새마을회는 1982년부터 시작된 것으로 아는데요, 무수한 활동 내용 중 기억에 남는 활동이 있나요?

석탄 산업 합리화 정책으로 인해 폐광이 확대되면서 지역 경제 침체와 주민 환경 낙후로 인해 지역이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새마을지도자들이 솔선수범하여 경제 활성화와 환경정화 활동으로

지역 환경 개선을 위해 앞장서 왔습니다.

또한, 분리수거 중요성을 인식하고 쓰레기 매립장을 방문하여 쓰레기를 처리하는 과정을 견학하고 각 읍면 집하장에 현수막을 걸어 주민에게 알리고 분리수거 운동을 전개하여 쓰레기 매립장을 감소하는 등 매립장 수명을 연장하는 계기를 마련했습니다.

여러 새마을운동을 하시면서 느낀 보람은 무엇인가요?

하천정소, 분리수거, 환경정화 활동으로 정선군을 찾는 관광객뿐만 아니라 지역 주민에게 깨끗한 정선의 이미지를 전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홀몸 어르신, 한부모 가정, 다문화 가족 등 주위에 어려운 이웃에게 김장김치, 송편, 반찬 나눔을 통해 모두가 즐거워하는 모습을 볼 때 뿌듯한 마음이 들었으며, 농번기에는 일손이 모자란 농가에서 작지만 일손을 보태어 농민들이 한시름 놓는 모습을 볼 때 보람을 느꼈습니다.



정선군새마을회의 자랑거리가 있다면요?

정선군으로 진입하는 주요 도로에 설치된 군집기를 정기적으로 정비하고 있습니다. 특히 정선은 지역 특성상 바람이 심하게 불어 노인회관 및 마을회관에 게양된 태극기와 새마을기가 빨리 훼손되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이에 새마을지도자들이 앞장서서 수시로 교체하는 일을 진행하여

2022년 국가상징 선양(태극기) 유공자 분야 국무총리 단체 표창을 수상하기도 했습니다.

새해가 밝았습니다. 2023년 정선군새마을회의 앞으로의 계획과 포부에 대해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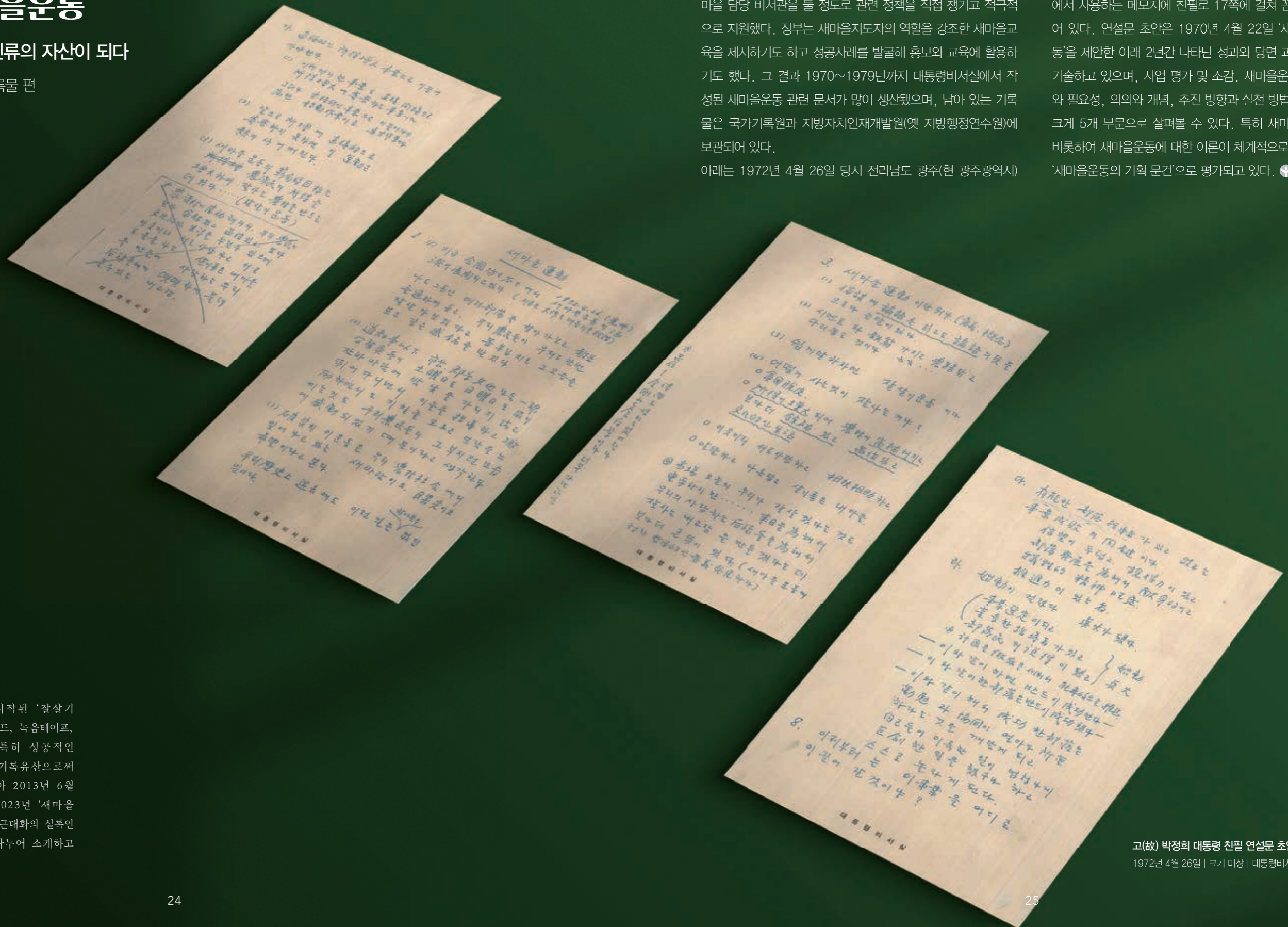
올해는 읍면을 순회하면서 간담회 및 교육을 활성화하여 지도자들의 역량을 강화하고 지역의 선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진행할 계획입니다. 또 공동체 운동을 전개하고 탄소중립실천운동을 통해 희망찬 아침, 평온한 저녁, 행복한 정선을 만들기 위해 앞장서는 정선군새마을회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왼쪽부터) 박봉의 문고회장, 최양진 지회장, 김학순 부녀회장, 김낙균 협의회장

대통령과 정부가 적극 지원한 새마을운동

새마을운동기록물, 인류의 자산이 되다

대통령비서실이 생산한 기록물 편



정부가 가장 적극적으로 추진한 지원 정책 중 하나를 꼽으려면 단연 새마을운동이다. 특히 박정희 대통령은 대통령비서실에 새마을 담당 비서관을 둘 정도로 관련 정책을 직접 챙기고 적극적으로 지원했다. 정부는 새마을지도자의 역할을 강조한 새마을교육을 제시하기도 하고 성공사례를 발굴해 홍보와 교육에 활용하기도 했다. 그 결과 1970~1979년까지 대통령비서실에서 작성된 새마을운동 관련 문서가 많이 생산됐으며, 남아 있는 기록물은 국가기록원과 지방자치인재개발원(옛 지방행정연수원)에 보관되어 있다.

아래는 1972년 4월 26일 당시 전라남도 광주(현 광주광역시)

에서 개최될 '새마을소득증대 촉진대회'를 격려하기 위해 박정희 대통령이 직접 작성한 연설문 원고 초안이다. 대통령비서실에서 사용하는 메모지에 친필로 17쪽에 걸쳐 꼼꼼하게 작성되어 있다. 연설문 초안은 1970년 4월 22일 '새마을가꾸기 운동'을 제정한 이래 2년간 나타난 성과와 당면 과제를 바탕으로 기술하고 있으며, 사업 평가 및 소감, 새마을운동의 근본 취지와 필요성, 의의와 개념, 추진 방향과 실천 방법, 추진 지침 등 크게 5개 부문으로 살펴볼 수 있다. 특히 새마을 3대 정신을 비롯하여 새마을운동에 대한 이론이 체계적으로 제시되어 있어 '새마을운동의 기획 문건'으로 평가되고 있다. 📌



새마을운동은 1970년부터 시작된 '잘살기 운동'이다. 활동은 문서와, 슬라이드, 녹음테이프, 영화필름으로 제작 되었다. 특히 성공적인 농촌 부흥의 원형을 보여주는 기록유산으로써 중요한 사료적 가치를 인정받아 2013년 6월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됐다. 2023년 '새마을 아카이브' 코너에서는 한국 농촌 근대화의 실록인 새마을운동기록물을 주체별로 나누어 소개하고 가치와 의미를 전하고자 한다.

고(故) 박정희 대통령 친필 연설문 초안
1972년 4월 26일 | 크기 미상 | 대통령비서실 | 유네스코기록

마음을 잇다, 봄날을 열다

「2022 우수 마을공동체 경진대회」
최우수 마을 대구 달서구 '봄날' 마을공동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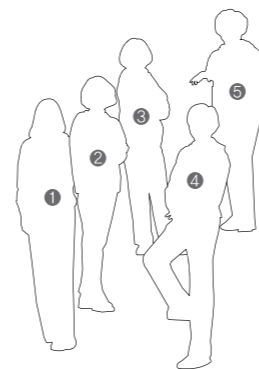


일상생활을 공유할 수 있는 공간적, 사회적 범위를 뜻하는 마을에서 사람들은 정서를 교류하고 관계를 맺는다. 그러므로 좋은 마을이라는 것은 마을 주민 모두의 협동은 물론 내가 아닌 남을 위한 배려가 넘쳐나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용산2동 주민들은 폭염엔 물을 나누고 마음이 힘들 땀 꽃을 통해 위로를 전했다. 채소가 여물면 수확해 이웃에게 나눌 반찬을 만들고, 버려진 땅은 모두의 정원으로 만들었다. 그 중심엔 늘 '봄날'이 있었다. 코로나19로 모두의 마음이 닫혔을 때도, 아직 추운 겨울임에도 마을이 늘 봄처럼 따듯한 이유다.

write. 왕보영 photo. 김병구

작은 힘이 모여 만든 최고의 결실

눈 한 송이를 굴리고 굴리다 보면 커다란 눈사람이 된다. 처음 꼭꼭 뭉치는 일이 어렵지, 조금 커진 눈덩이는 살짝만 밀어도 알아서 데굴데굴 굴러간다. '시작이 반이다'라는 말처럼 시작이 중요한 이유는 생각이 행동으로 이어지기까지가 어렵기 때문이다.



대구 달서구 용산2동 마을공동체
봄날 회원들(왼쪽부터 이소라 회원,
안정숙 회원, 김진우 회원, 조민정
총무, 강춘희 회장)

지난 2022 우수 마을공동체 경진대회에서 용산2동 마을공동체 (대표 강춘희) '봄날'은 최우수상을 받았다. 핑크빛 봄날처럼 눈부신 성과였지만 그 이면엔 솔한 노력과 회원들 간 협동, 그리고 포기하지 않는 마음이 있었기에 가능한 것이었다.

“우리 봄날은 2020년 3월에 발대했어요. 당시 새마을부녀회에서 활동하고 있었던 회원 몇 명이 주축이 되어 바르게살기위원회, 통우회(통장모임) 등 동단체 회원 15명과 함께 시작했죠. 당시만 해도 대구는 코로나19 도시라는 낙인으로 시민 모두가 위축되어 있었어요. 집에만 갇혀 있다시피 한 소외계층의 안타까움을 모른 척할 수 없었죠. 혼자 있는 이들에겐 말 한마디도 큰 힘이 되거든요.”

강춘희 회장은 작은 활동일지라도 우울이나 상실에 빠진 이웃에겐 분명 큰 힘이 될 것을 알고 있었다. 혼자가 아닌 곁에 누군가

있다는 생각은 긍정의 힘을 샘솟게 하기 때문이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로 힘닿는 데까지 변치 말고 봉사하자는 마음으로 시작한 봄날은 20대부터 60대까지 세대를 아우르며 어느새 37명으로 늘어났다. 회원들은 서로 어찌나 돈독하고 봉사에 대한 열정이 높은지, 참여하고 싶었는데 조기 마감되었다는 불만 아닌 불만이 쏟아져 나오기도 한다.

“너도나도 봉사에 참여하고 싶어 하는 것에 반해 봉사 활동이 적었어요. 그래서 제가 자원봉사센터, 복지관을 집 드나들 듯하고 인터넷에서 검색하고 전화 돌리고... 정말 발로 뛰고 손으로 검색하며 할 수 있는 일들을 모으기 시작했죠. 행복한 고민을 하며 여러 일을 벌이고 있어요.” 강 회장은 인정받자고 시작한 일은 아니지만 이렇게 큰 상을 받으니 봄날 회원 모두가 자긍심을 갖고 더 열심히 일할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것 같아 기쁘다고 전했다.

나누면 채워지는 마법 같은 일

“자꾸 모여 얼굴도 자주 봐야 서로 간의 정도 쌓이고 이번엔 못하더라도 '다음엔 나도 참여해야지'라는 마음이 생기거든요. 감사하게도 회원 모두가 시간과 마음을 들여 하는 봉사에 즐겁게 참여해 준 덕분에 코로나19 시절 여러모로 빈 틈새를 저희 봄날이 채울 수 있었어요.”

회원 모두가 내 것을 나누는데 오히려 내가 채워지는 기분이라고 말한다. 집에선 옷을 많이 세탁하는데, 여기선 옷을 일만 있다고 말이다. 그러니 자꾸만 나오고 싶고 하나라도 더 참여하고 싶을 수밖에.

봄날의 봉사는 심리방역 꽃바구니 만들기, 꾸러미 전달과 같은 소외 이웃 돌봄부터 EM 비누, 천연 차약 만들기 탄소중립 실천까지 장르를 가리지 않는다. 특히 지난해엔 빌라촌 공터에 쌓인 폐건축 자재와 쓰레기를 걷어낸 후 흙을 채우고 씨를 뿌려 정원으로 가꿨다. 모두의 골치거리가 모두의 힐링 공간으로 탈바꿈된 순간이다. 조민정 총무는 “우리는 일방적인 봉사보다 '함께'를 강조해요. 단순히 반찬을 만들어서 가져다드릴 수도 있지만 어르신들을 모시고 같이 하면 저희는 나름의 요리 노하우를 배울 수도 있고 어르신은 무료한 하루를 재미있게 보낼 수도 있죠”라고 말했다.

그는 모든 활동을 기록하고 공유해 봄날만의 기록유산을 만들어 가고 있다. 활동일지를 읽다 보면 그날의 일과 감정이 입체적으로 느껴진다. 어느 회원이 참석했고 누가 간식을 챙겨왔는지, 차량 지원을 누가했는지, 아쉬운 점이나 좋았던 점, 느낀 것을 세세히 적는다. 누군가는 말한다. 간식 가져온 것이 뭐 그리 큰일이라고 적느냐고. 그럴 때마다 조민정 총무는 간식은 별것 아닐 수 있으나 회원들을 위해 챙긴 그 마음은 대단한 것이라고 말한다. 이러한

마음은 회원들 간 돈독한 정은 물론 봄날을 더욱 성장하게 했다. “우리 회원들은 적게는 1개에서 많게는 5~6개씩 자격증을 취득했어요. 몸이 불편하신 분들 목욕 봉사를 하러 갔는데 옷을 입고 벗기는 것도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방법이 있더라고요. 이왕 하는 거 전문적이면 좋겠다 싶어 회원 몇 명이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땀어요. 그러다 심리상담사, 간호조무사, 미술치료사, 사회복지사, 노인인지능력지도사... 이렇게 영역을 넓혀 간 거죠. 몇 명이 시작해서 전체로 퍼졌어요. 봉사와 관련된 것뿐만 아니라 저희가 전개하는 탄소중립운동 관련해서 온실가스감축컨설턴트, EM 교육 등 환경과 관련된 것도 꾸준히 공부하고 있고요.” 강 회장이 별거 아니라는 듯 이야기하지만, 시간을 내어 공부하고 또 그것을 이뤄내기까지 쉽지 않았을 것이다. 마음으로, 몸으로 필요하다 느껴 스스로 이뤄낸 결실은 봄날의 풍부한 인적자원이라는 강력한 힘이 되었다. 이를 토대로 회원들은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해 세대를 아우르는 소통창구 역할을 하고 있다.

우리의 봄날에서 모두의 봄날로

“모든 마을공동체가 다 좋은 활동을 하고 계시겠지만, 그중에서도 저희가 상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활동을 세세히 기록한 것과 회원들이 더 많이, 다양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시간별·요일별 활동을



2



3



1

새싹에서 나무가 된 봄날은 이제 인근 다수의 마을을 결합하는 숲이 되기 위해 뿌리를 내리고 있다.

1
봄날의 심리방역 프로그램인 꽃바구니 만들기

2
활동내역을 세세하게 적은 봄날의 사업일지

3
(왼쪽부터) 봄날을 이끌어가는 조민정 총무와 강춘희 회장

구성한 것에 대해 높은 평가를 받았기 때문이라고 하더라고요.” 강 회장은 이제 용산2동의 봄날이 아닌 옆 동네로, 나아가 대구 전체의 봄날을 꿈꾼다. 당장 봄날처럼 세세한 기록을 작성하거나, 회원들의 직업이나 연령, 시간에 맞게 다양한 활동을 구성하기는 어렵겠지만 그 노하우를 차근차근 전하려 한다. 마침 코로나19도 그 끝이 보인다. 그러나 회원들은 더욱 신이 난다. 더 자유롭게 더 활발하게 나눔을 실천할 수 있으니 말이다. 게다가 마을공동체 활동도 2년이 지나며 새싹에서 어엿한 나무가 되었다. 새싹에서 나무가 된 봄날은 이제 인근 다수 마을을 결합해 주제별 사업을 발굴하고 지속적 전개를 위한 기반을 다지는 숲을 향해 뿌리를 내리고 있다.

강춘희 회장은 “우리 핑크빛 봄날이 있는 한 마을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주민들이 자부심을 느끼고 회원들은 꾸준히 자기 계발을 해 세대를 아우르는 소통 창구 역할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다 함께 잘사는 마을이 될 때까지요!”라고 2023년 새 다짐을 전한다. 핑크색 단체복을 입고 마을 곳곳을 누비는 봄날, 더 좋은 마을을 위한 활동은 오늘도 현재 진행 중이다. 🌱

작은도서관에서 피어나는 문화의 힘

대통령기 제42회 국민독서경진대회 종합평가 최우수

새마을문고 부산광역시지부

도서관의 역할과 기능이 더욱 확대되고 있다. 단순히 책을 열람하거나 대출하는 기본적인 역할을 넘어, 전시·문화강좌·공연·체험 등이 가능한 '복합문화공간'으로서 변화하고 있는 것. 이러한 도서관의 역할은 주민의 문화 수준을 향상할 뿐만 아니라, 소통의 장으로서 주민 간의 끈끈한 연대를 형성한다. 새마을문고부산광역시지부가 2022년 '대통령기 제42회 국민독서경진대회'에서 종합평가 '최우수'를 수상한 결과 역시 독서 공간을 넘어 복합문화공간으로 거듭나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write. 장희주 photo. 김병구



도서관을 넘어 복합문화공간으로 진화하다

새마을문고부산광역시지부(회장 이동현)는(이하 새마을문고) 주민들이 일상에서 책과 가까워질 수 있도록 205개에 달하는 작은도서관을 운영하고 있다. 매년 서가에는 매력적인 신간들이 채워지고, 자원봉사자들로 이뤄진 새마을 회장단을 통해 작은도서관이 운영된다. 여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은 물론 어른들을 위한 다양한 문화 체험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다.

무엇보다 새마을문고에서 개최하는 프로그램은 주민들의 독서 문화를 증진하는 데 특특히 도움을 주고 있다. 그중 하나가 '독서왕' 선발이다. 한 해 동안 가장 많이 도서관을 방문하고, 독서감상문 공모에 참여한 주민들을 대상으로 독서왕을 선발한다. 독서왕 선발은 열심히 책 읽는 이들을 독려할 뿐만 아니라, 부산 지역의 독서 문화를 활성화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

이러한 독서 증진 문화 활동은 도서관을 넘어 부산 전역에서 이뤄지기도 한다. 현재 부산은 '2030 부산 세계박람회 유치'를 위해, 범지역적인 홍보 활동을 펼치고 있다. 새마을문고 역시 부산에서

세계박람회가 유치될 수 있도록 하는 홍보 활동에 동참하고 있다. 2022년 개최된 부산시민문화한마당에서 다양한 행사를 주관하여 진행했다. 세계박람회 유치를 주제로 한 오행시 짓기, 백일장 및 사생대회가 바로 그것. 행사는 사전 신청 인원 200명뿐만 아니라, 행사 당일 접수한 인원까지 합하면 무려 300여 명이 참여했을 만큼 성황리에 개최됐다.

'독서문학캠프'도 그중 하나다. 문학사적으로 의미 있는 작가의 작품을 현실에서 마주할 수 있도록 구성한 프로그램인데, 문학 작품을 단순히 읽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제 배경에 가 보고 체험함으로써 감상의 폭을 넓히는 계기를 마련해주고 있다.

1,2

(위, 아래) 새마을문고 부산광역시지부는 매년 부산시민을 대상으로 문화한마당을 개최해 부산지역 독서문화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다. 사진은 지난해 개최한 문화한마당 행사장 모습이다.

작은도서관의 위상이 높아지다

최근에는 지역 아이들을 위한 '탄소중립 교실'도 열었다. 에코백·천연비누 만들기 등 지구를 위한 작은 실천을 통해 아이들에게 자연스럽게 기후위기를 알리고, 일상에서 기후변화를 막을 수 있는 실천 방안을 공유하고 있다. 의미 있는 활동이다 보니, 매년 참여하는 아이들로 작은도서관이 붐빌 정도다.

“일상생활 속 탄소중립 실천과 환경의 소중함을 알리는 교육 프로그램 중 하나예요. 마침 방학인 터라 많은 아이들이 프로그램에 참여해주고 있어서 무척 뿌듯합니다.”

탄소중립 교실을 운영하고 있는 부산 기장군 철마고촌새마을문고 작은도서관 정현숙 회장은 자기주도적으로 탄소중립을 실천할 수 있는 교육에 앞장서겠다고 작은도서관의 교실 운영에 대해 이야기했다.

이처럼 지역과 함께 상생하는 덕분인지, 새마을문고는 지난해 기쁜 소식을 얻었다. 대통령기 제42회 국민독서경진대회에서 종합평가 최우수상을 받았다. 그렇기에 새마을문고는 작은도서관이 해 나가야 할 역할과 책임에 더욱 무게감을 느끼고, 지역 주민을 위한 문화 증진 활동에 무엇이 필요할지 고민하며 채워가고 있다.

웃음이 끊이지 않는 작은도서관

새마을문고는 어떤 방식으로 운영될까. 새마을문고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는 이유는 모두 숨은 조력자들 덕분이다. 새마을문고가 활짝 문을 열고 내일을 위해 하루를 마무리할 수 있는 데는

도서관을 아침저녁으로 지키는 새마을문고 회원들이 있기 때문이다. 연령대도 다양하다. 이들은 어려운 일일자리도 마다하지 않고 새마을문고 일이라면 언제나 손을 내밀어준다. 새마을문고에서 개최하는 행사가 있다면 언제나 이들이 든든한 조력자가 되어주고 있다. 이들의 활동은 새마을문고 내에서만 그치지 않는다. 부산을 위한 일이라면 솔선수범해 나선다. 명절 맞이 환경정비, 농촌 마을 일손 돕기, 취약 계층을 위한 사랑의 반찬나눔 활동 등이다. 곳은 일도 마다하지 않고 활동에 참여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이유는 그리 거창하지 않다. 그저 지역을 위해서다. 그렇기에 이들이 앞으로 함께 한다면, 새마을문고는 오늘도 내일도 해피엔딩일 것이다. 특히 철마고촌새마을문고 작은도서관의 초대 회장을 맡았던 김경희 회장은 작은문고에 대한 애착심이 무척 강하다.

“새마을문고 부산지부에서 많은 도움을 주신 덕분에, 작은 동네임에도 서기에는 매년 신간들이 깔려요. 여기에 계시는 많은 회장님들과 함께 앞으로도 더욱 즐거운 작은도서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할게요.”

근 몇 년간 코로나19로 많은 행사가 취소되거나 활성화되지 못했다. 그래서인지 지역 사회조차도 서로 왕래가 적어지고 이에 따라 사회가 메말라가는 현상을 보여왔다. 새마을문고의 지향점도 바로 여기에서부터 시작된다. 메말라 가는 사회를 따뜻하게 빛춰주는 지역 거점이 되고자 한다. 책을 읽는 공간을 넘어 지역 주민의 '사랑방'이 되어주고 있는 새마을 작은도서관. 주민들의 웃음이 끊이지 않는 지역 사랑방에서 문화의 꽃이 활짝 피어나고 있다. 🌸



새마을문고는 작은도서관이 해 나가야 할 역할과 책임에 더욱 무게감을 느끼고, 지역 주민을 위한 문화 증진 활동에 무엇이 필요할지 고민하며 채워가고 있다.



3 철마고촌새마을문고 작은도서관 회원들

4 새마을문고 부산광역시지부 회원들은 작은도서관에서 지역 아이들을 대상으로 '탄소중립 교실'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지구를 위한 작은 실천을 일깨우고 있다.

5 철마고촌새마을문고 작은도서관은 작은 규모임에도 불구하고 매년 신간이 구비되어 지역 주민의 '사랑방' 역할을 하고 있다.



미래를 위한 새싹을 피우다

2022 전국대학새마을동아리 연말 평가대회

대상 순천대학교 새마을동아리 '새순'

내일의 지구를 위해 작은 싹을 틔운 순천대학교 새마을동아리 '새순'은 한 해 동안 근면과 자조, 협동이라는 자양분으로 무럭무럭 자랐다. 그 결과 전국대학새마을동아리 연말 평가대회에서 대상이라는 열매를 맺었다. 오늘이 아닌 내일을, 내가 아닌 미래 후손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실천하는 대학새마을동아리 새순을 만나 지난 일 년의 활동을 돌아봤다.

write. 왕보영 photo. 이민희



(왼쪽부터) 채혜원 회원, 이지수 부회장, 조수아 회장, 조현창 회원

안녕하세요? 먼저 본인 소개 부탁드립니다.

조수아 안녕하세요. 순천대학교 무역학과에 재학 중이고요, 새마을동아리 2022년 '새순' 회장을 맡았던 조수아입니다.

이지수 저는 순천대학교 산림자원 조경학부 1학년에 재학 중인 이지수입니다. 2023년 새순의 차기 회장직을 맡게 되었습니다.

조현창 반갑습니다. 순천대학교 농생명과학과 재학 중인 조현창입니다. 2023년 새순의 차기 부회장을 맡게 되었습니다.

채혜원 안녕하세요, 저는 순천대학교 무역학과에 재학 중인 4학년 채혜원이고요, 새순 동아리 회원으로 구성원과 함께 다양한 활동에 참여했습니다.

새순은 어떤 의미를 담고 있나요?

조수아 2022년 4월 창립총회를 거쳐 창립된 새순은 새마을의 '새'와 순천대의 '순'에서 착안하여 새로 피어나는 새싹처럼 지구를 싹 틔우자는 의미를 담아 이름 지었습니다. 저희는 제로 웨이스트와 탄소중립을 실천하는 동아리로 2022년 12월 기준, 45명의 회원과 함께 활발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2022 전국대학새마을동아리 연말 평가대회에서 대상을 수상했어요.

조수아 식상한 이야기겠지만, 최종 발표까지 올라갈지 몰랐어요. 게다가 이번 수상엔 발표 후 실시간 현장 투표가 반영되어 어느 동아리가 수상할지 정말 알 수 없었으니까요. (웃음) 저희가 우수동아리로 선정되어 발표 기회를 얻어 수상까지 이어진 건 다 새순 친구들과 순천시새마을회의 노고가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라 생각합니다. 전국 새마을동아리가 시작되고 처음 열린 대회에서 회원들의 소중한 한 표가 더해져 받은 첫 수상인 만큼 더 큰 의미로 다가오는 것 같아요!

평소 새마을운동을 알고 있었나요?

조수아 우리나라 역사에서 새마을운동은 빼놓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창립 이후부터 현재까지 긴 시간 국내외에서 선한 영향력을 전하고 있다는 것에 감사함을 느끼고 있었어요.

이지수 개인적으로 새마을운동하면 옛날 것이라는 생각이 먼저 들었었어요. 농촌과 관련된 운동이라 생각하고 저와는 상관없는 일이라고 생각했죠. 그러던 중 새마을운동이 기후 위기 극복을 위한 탄소중립의 실현에 이바지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서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조현창 저는 동아리 가입 후 창립총회를 통해 단순한 환경

동아리가 아닌 새마을정신을 바탕으로 하는 환경 동아리라는 것을 알게 되었죠. 이후 자연스럽게 새마을운동에 관심을 갖게 되고, 검색하면서 알아가게 되었습니다.

채혜원 학창 시절 한국사 수업에서 1970년대에 새마을운동이 일어났다는 것을 배웠죠. 이 운동을 통해 경제발전이 빠르게 이루어졌다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지금까지 다양한 운동으로 전개되어 선한 영향력을 전하고 있다는 사실에 놀랐어요!

새마을동아리에 참여하게 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조수아 환경 동아리를 만들고 싶었던 저에게 새순은 가장 큰 선물입니다. 기후 위기나 환경 문제에 대한 경각심을 온몸으로 느끼던 타이밍에 새마을운동의 이념과 정신이 제가 추구하는 가치와 일치해 제가 맡아 보겠다고 나섰어요. 근면, 자조, 협동이 환경 문제뿐만 아니라 전 지구촌 상생의 가치를 전달하는 이념이기에 함께하고 싶다는 다짐을 했던 것 같습니다.

이지수 저는 예전부터 환경에 관심이 많아 비건 지향이나 텀블러 사용처럼 사소하지만 꾸준히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새마을동아리이자 환경 동아리인 '새순'에 가입하게 된 것도 위와 같은 이유에서예요. 혼자보다는 느리더라도 여럿이 함께 행동하는 것이 탄소 중립과 환경 보호에 더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조현창 순천대 최초의 환경 동아리인 동시에 제로웨이스트와 탄소중립에 초점을 두고 활동한다는 점이 인상 깊어 참여하게 됐습니다. 이전에도 환경정화 활동, 플로깅 등 환경 봉사활동에 참여한 경험을 되살려 적극 참여하고 있습니다.

채혜원 탄소중립, 탄소배출권거래제 등 환경문제를 다룬 전공 수업을 듣고 있어서 환경에 관심이 생겼던 중에 환경 봉사 동아리인 '새순'이 생겼다는 것을 알게 되어 가입하게 되었습니다.



새마을운동에 대한 이해와 옛것이라는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같은 눈높이에서 소통하고 서로를 공감하는 참여형 활동이 확대되어야 할 것 같아요.

새마을운동을 직접 겪어보니 활동 전과 후가 어떻게 다른가요?

조수아 새마을운동이 우리 세대의 몫이 아니라고 생각했었는데 국민 모두가 함께 가지고 갈 정신이라고 느꼈어요. 선행의 몫을 나누어 생각했던 제 자신을 반성하게 되는 한 해였던 것 같습니다.

이지수 대학 생활을 시작하면서 다양한 부분에서의 근면, 자조, 협동이라는 새마을의 기본 정신은 절대 빠질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앞으로는 이러한 새마을정신을 잊지 않고 최선을 다하고 싶습니다.

조현창 눈앞에 보이는 '지금'을 위해 노력해왔던 제 자신을 반성하게 되었어요! 새마을정신은 오늘 우리가 잘 사는 것이 아닌 미래 후손에게 더 나은 환경을 물려주기 위한 일거거든요.

채혜원 새마을동아리를 통해 근면과 협동 정신을 다시금 다짐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또 개인적으로는 기본적인 분리수거와 텀블러 사용하기 같은 매일 할 수 있는 일들을 늘려가며 노력하고 있습니다.

새마을운동이 보다 젊어지고 젊은 세대와 소통하려면 무엇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세요?

조수아 새마을운동에 대한 이해와 옛것이라는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같은 눈높이에서 소통

하고 서로를 공감하는 참여형 활동이 확대되어야 할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저희가

진행했던 플리마켓이나 SNS 참여 이벤트 등 가볍고 쉽게 다

가갈 수 있는 창구가 더 많아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지수 이번 행사처럼 청년들이 새마을운동에 쉽게 다

가갈 기회가 많아지면 좋겠어요. 또, 다양한 사회 문제들을 파악하여 청년

들과 새마을운동이 함께 극복해나갈 수 있도록



교육과 봉사활동의 기회가 많아지면 좋겠습니다.

조현창 학생들에게 더 많은 기회와 경험을 제공하고 꾸준히 공생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해요. 더 나아가 연령층을 낮춰 초등부, 중등부, 고등부 새마을 연합회를 만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채혜원 SNS 채널이나 유튜브 등을 통해 새마을운동 소개, 활동 콘텐츠를 활발하게 올려 MZ세대와 의견을 나눌 수 있는 소통창구와 횡수가 더 늘어나면 좋을 것 같아요. 접근성이 좋아져 보다 많은 사람이 새마을운동에 대한 인식이 바뀌고 참여가 늘 것으로 예상됩니다.

끝으로 2023년 새마을동아리의 계획과 바람이 있다면요.

조수아 창립회장을 맡다 보니 아쉬운 부분이 많이 남습니다. 그럼에도 함께 해준 우리 새순 친구들과 1년 동안 저희를 적극 지원해 주신 새마을운동중앙회에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우리의 활동이 당장 세상을 바꿀 순 없겠지만 작더라도 가치 있고 소중한 활동들이 하나둘 모여 결국 큰 변화의 물결을 가져올 것이라 장담합니다.

이지수 차기 회장이로서 다양한 활동을 기획하고 있습니다. 특히 탄소 중립을 실현하기 위해 동아리 내에서 비건 지향 캠페인을 진행하면서 지역 경제도 활성화할 수 있는 활동을 해볼까 해요.

조현창 우리 동아리는 앞으로 비건에 초점을 맞추고자 합니다! 먹는 것 또한 환경을

위할 수 있으니까요! 이외에도 다양한 활동들을 계획하여

함께 환경을 지켜나갈 생각이예요!

채혜원 동아리원뿐만 아니라 기존 학생들도 직접 참여할 수 있는 활동을 더욱 늘려 많은

학생이 환경에 관심을 가질 기회가 생기면 좋겠습니다! ♡

세대를 아우르는 새마을운동, 우리가 바로 '대세'

2022 전국 대학새마을동아리 연말 평가대회 열려



새마을운동중앙회는 공동체가 처한 시대적 문제를 함께 해결하는 미래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대학 내 새마을운동을 전개했다.

이에 지난해 삼육대, 한밭대, 동아대, 경북대, 카이스트, 울산대, 경기대, 충북도립대, 신성대, 전북대, 세한대, 영남대, 경남대, 제주대 등 65개 대학과 업무협약을 체결했으며, 59개 대학에서 대학새마을동아리를 구성해 전국 대학새마을동아리연합회 발대식을 개최했다.

전국 2,200여 명의 대학새마을동아리 회원들은 한 해 동안 교육봉사, 농촌 일손 돕기, 소외계층 돌봄, 탄소중립 운동 등 지역별 특색에 맞춰 사회발전을 위한 다양한 봉사활동을 펼쳤다.

한 해 동안 대학생새마을동아리의 노고를 격려하기 위해 새마을운동중앙회는 지난 12월 27~28일 양일간 중앙회 대강당에서 '2022 전국 대학새마을동아리 연말 평가대회'를 개최하고 회원 간 소통과 연대를 강화했다.

이날 자리에는 중앙회장, 시도새마을직원, 16개시·도 47개 대학 220여 명의 대학새마을동아리 회원들이 참석했다. 평가대회는 새마을운동중앙회장 특강, 활동 사례 공유 및 평가, 소통의 시간, 우수동아리 활동사례 발표 및 시상식, 기부 물품 전달식 순으로 진행됐다.

12월 28일 진행된 우수동아리 시상식에는 전국 우수동아리로 선정된 14개가 동아리가 차례로 활동사례를 발표했으며, 회원들의 실시간 투표를 반영해 수상자를 선정했다. 대상으로는 탄소중립 운동을 중심으로 깨끗한 지역사회 만들기에 앞장선 순천대학교 '새순'이 선정되어 시상금 300만 원과 중앙회장 표창을 받았다.

곽대훈 새마을운동중앙회장은 "대학새마을동아리평가대회가 서로의 귀중한 경험을 공유하고, 공감·소통하는 청년의 열기로 가득한 훈훈한 자리가 됐다"라며 어려운 이웃에 손 내밀고 따뜻한 말 한마디를 건네는 나눔과 돌봄 역할에 최선을 다해달라"라고 당부했다. ♡

멈추지 않는 내일을 위해!

라오스 새마을운동 현지연수 새마을교육



새마을운동, 라오스에 번지다

라오스에 새마을운동이 시작된 때는 2009년의 일이다. 새마을운동중앙회는 빈곤율이 높은 라오스를 위해 다양한 소득사업·가축은행사업·비가림하우스사업 등을 전파하며 농촌 생활환경을 개선하고,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켰다.

무엇보다 비가림하우스 설치 및 채소재배 사업은 새마을운동의 가장 큰 성과라 할 수 있다. 라오스는 자연환경 특성상 우기와 건기가 존재해, 채소를 재배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비가림하우스는 번덕이 심한 기상 상황에도 채소를 안정적으로 재배할 수 있도록 하고, 이는 라오스 주민의 소득을 기존 대비 연평균 4배 이상 증가하는 데 도움을 주었다.

우기와 건기라는 자연 환경 특성은 농작물 재배뿐만 아니라, 주민의 삶의 질도 위협했다. 대체적으로 라오스의 새마을운동 시범마을은 도로 사정이 열악했다. 우기에는 진흙으로 통행이 불편했고, 건기에는 흙먼지로 주민들이 고통 받았다. 이는 도로포장 사업을 통해 개선했고, 주민 삶의 질 향상뿐만 아니라 다양한 긍정적인 효과를 주었다. 학생들의 등교 환경이 개선됨은 물론, 생산품 운송이 빠르고 편리해져 소득 증대는 물론 경제력이 상승하는 기반을 마련해주었다.

수혜국에서 지원국으로, 발돋움 하는 라오스

2009년부터 시작해 지금까지 긍정적인 효과를 내며 이어지고 있는 라오스새마을운동. 그 기반에는 마을 문제를 자발적으로 발굴하고 해결하려는 주민들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중앙회는 과거 한국이 그러했던 것처럼, 라오스가 수혜국에서 지원국으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끊임없는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 그중 하나가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연수 프로그램이다.

중앙회는 2022년 11월 30일부터 12월 3일까지 라오스에 한국의 새마을운동 경험을 공유하는 연수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시범 마을인 비엔티엔 주의 령캄마을, 볼리캄사이 주의 향쌍사왕마을·폰응암마을·후아이싸이마을의 주민, 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새마을운동, 새마을지도자의 역할과 현장활동, 소득 증대 등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특히 분임토의 시간에는 시범 사업 기간 동안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로드맵을 설정하도록 지도하고, 주민이 적극적으로 마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방법을 안내했다.

연수 과정에서 새마을운동에 대한 마을 주민의 적극적인 참여가 눈여겨볼 만했다. 그들은 3박 4일간 진행된 연수 기간 동안, 적극적인 참여로 주인정신을 높였을 뿐만 아니라 마을주민이 함께

전 세계로 퍼져나가는 새마을운동은 약소국에 ‘우리도 할 수 있다’는 자긍심을 심어주었다. 동남아의 빈국으로 손꼽히는 라오스도 그러한 나라 중 하나다. 그들은 새마을운동을 통해 마을의 문제를 스스로 발굴하고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능력을 배양했다. 그 근간의 중심에는 새마을운동의 정신이 있었다.

write. 장희주



하는 네트워크의 장을 열기도 했다. 연수에 참여한 완나쑈 쩌다윙 폰응암 마을 비가림하우스 사업 담당자는 “교육을 통해 마을을 어떻게 하면 잘 살게 할 수 있는 지 배울 수 있었다. 교육에 참여하지 못한 주민들에게도 내용을 공유해 더 좋은 마을을 만들기 위해 힘쓰겠다”라고 이야기했다. 라남 캄씨 후아이싸이 마을 부이장은 “마을이 잘살기 위해 어떤 활동을 해야할지 생각하게 되었고, 교육을 통해 배운 채소 재배 방법을 마을에 적용해보고자 한다. 이는 이웃들과 주변에 전파해, 이번 교육이 보다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하겠다. 앞으로도 새마을운동중앙회와 함께 다양한 활동들을 해 나가고 싶다”라고 말했다. 특히 이들은 한국의 농촌 현장에 직접 방문해



채소 재배, 천연 퇴비 제작 방법 등을 실습하고 싶다는 열의를 내비치기도 했다. 라오스의 주민들은 새마을운동을 통해 자신들의 생활환경을 개선하고, 마을을 아름답게 가꾸는 방법을 알게 됐다. 이러한 기틀을 기반 삼아, 라오스가 자발적이고 주도적으로 자신들의 미래를 개척해나갈 수 있기를 바라본다. ↘

1 라오스 새마을운동 활성화를 위한 현지연수 모습

2 나와마을 현장 견학

새마을운동중앙회는 기후변화와 탄소중립에 대한 관심과 인식을 높이고 사회적 실천 분위기를 확산하기 위해 <탄생 ACT: 탄소중립 실천사례 수기 공모전>을 진행했다. 공모전 출품작 중 우수한 내용으로 평가 받아 선정된 두 편의 수기를 소개한다.

탄생 ACT! 걱정을 희망으로 걸어두다

〈우수상〉 전북 익산시 김미애



몇 년 전 캐나다에서 생활한 적이 있다. 그곳의 깨끗한 환경이 나 자연을 위해 불편함을 당연히 감수하는 사람들의 생활은 나를 무척 당황하게 만드는 일들이 많았다. 나는 귀국 후 익산시 새마을회에서 일하면서 요즘 대두되고 있는 탄소중립에 관한 일들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게 되었다. 앞으로 또 지구 온도가 2℃ 높아지면 인간뿐만 아니라 지구 전체를 위협하는 커다란 재앙이 올 것이라는 이야기를 듣고 더욱 앞장서야겠다고 생각했다.

먼저년부터 지금 바로 실천할 수 있는 일들에 집중하기로 했다. 집의 전등을 LED로 바꿨고, 멀티탭을 이용해 대기전력이 낭비되지 않도록 했으며, 냉난방 온도를 여름에는 27℃, 겨울에는 20℃로 설정하는 등 생활 습관을 고쳐 나가기 시작했다. 이러한 행동이 어떤 때는 유난 떠나는 눈치를 받는 것 같기도 했지만, 꾸준히 실천한 덕에 나와 식구들의 생활 습관이 변했고, 함께 하고 있다는 사실이 큰 기쁨이 되었다.

이제는 생활 습관에서 한발 더 나아가 지구 환경에도 좋은 천연 재료를 이용한 비누 형태의 세제와 세안용품 등도 만들어 사용하고 있다.

새마을회 친환경생활실천운동을 하면서 누군가는 해야 하고, 꼭 해야만 하는 일이라면 함께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마을공동체 활동을 통해 추진했는데 활동 초기에는 사람들의 인식을 변화시키는 일이 무척 어려웠다. 시간이 흐를수록 함께 행동해주는 사람들이 늘어 지금은 아주 즐겁게 일을 추진하고 있다.

먼저 익산시새마을회에서 마을공동체 활동을 시작한 하동마을은 대체 에너지로 태양광 에너지를 이용함으로써 에너지 자립마을로 만들어 좋은 사례가 되었다. 여전히 진행 중이며, 마을회 관에도 태양광 에너지를 설치해 모이는 수익금은 마을주민 모두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업에 사용하고 있다.

2020년 봄에는 주민들이 공동으로 관리하는 400여 평의 밭에 일반 식물보다 이산화탄소 분해 능력이 10배 뛰어난 케나프(양삼)를 심었다. 가을이면 다 자란 케나프 껍질을 벗기고 다듬어 미르산과 용화산을 오르는 등산객들을 위한 공용 지팡이로 만들어 다시 생명을 이어가고 있다.

금마면 황각마을 공동체는 강 살리기 운동을 꾸준히 전개하고 있으며, 천연비누와 약초 샴푸를 만들어 사용하기, 비닐 없는 주방 만들기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또 천연비료를 이용한 공동 고구마 농장 운영, 황각천 정화 활동 후 미나리 재배 등 모두가 함께 건강한 먹거리를 만들어 가고 있다.

2022년 마을공동체 활동을 처음 시작한 마동에서는 '환경 지킴 우리는 에코맘' 활동을 통해 EM 발효액을 만들어 생활 곳곳에서의 사용은 물론 화단과 화분에 사용하여 건강한 흙 만들기를 실천하고 있다.

'어린이와 함께하는 리사이클 반려 식물 나눔', '지구환경 지킴이 어린이 공모전'과 같은 어린이와 함께하는 활동을 기획해 실천하기도 했다.

이 외에도 익산은 탄소 중립을 위한 공동체 활동을 꾸준히 이어가고 있다. 꽃과 나무를 심는 것은 물론 가정에서는 '빈 그릇 챌린지' 운동을 통해 꼭 먹을 만큼 만들어 식사하기를 권하고, 비닐봉지 사용을 줄이기 위해 버려지는 현수막으로 장바구니를 만들어 이웃들에게 나눠주기도 했다. 또 유튜브 '새마을 환경 지킴 지구방위대' 채널을 통해 누구나 쉽게 환경 운동을 알아가고 동참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우리는 알고 있다. 오늘 내가 노력해도 내일 바로 환경이 바뀌지 않는다는 것을. 하지만 친환경을 넘어 필(必) 환경의 시대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완벽한 한 명의 환경 지킴이보다 완벽하지 않더라도 많은 이들의 참여이다. 🌱

탄소중립 어렵지 않아요!

〈우수상〉 대구 달서구 조민정



남을 위한 보람찬 활동을 하고 싶다는 생각에 2018년 새마을부녀회에 가입 후 활동을 시작해 지금까지 총무 역할을 맡고 있다.

차를 타고 스쳐 지나가던 마을풍경을 가까이 들여다보니 문제점이 하나씩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다. 마을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아파트 주변은 그나마 괜찮으나 독길 아래 빌라촌 환경은 엉망이었다. 특히나 싱크대 공장 주변에 폐자재와 적재물이 쌓여 너도나도 쓰레기를 투기하고 있었다.

눈살이 찌푸러졌으나 딱히 방법이 없어 회원들과 의견도 나누고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다 보니, 그곳이 공한지임을 알게 되었다. 바로 주민참여예산사업에 공모했고 사업이 선정되어 용산2동새마을부녀회가 미니정원을 조성하여 가꾸게 되었다. 주택가 후미진 골목 끝자락에 있는 공한지 한 곳도 함께 관리키로 했다.

먼저 공터를 쓰레기 집하장처럼 사용했던 업체를 계도하고 생활쓰레기와 폐건축자재, 폐기물 등을 처리했다. 마구잡이로 쌓여 있던 것들과 냄새나는 것들을 치우고 나니 정원 조성은 시작도 전인데 벌써 뭔가 이뤄낸 것 같은 뿌듯함에 모두 즐거워했다.

그런데 나무와 꽃을 심어 정원을 가꾸기에는 흠이 너무 없었다. 여러 의견이 오가며 사업을 포기하지는 의견까지 도달한 좌절의 순간, 좋은 뜻에 동참하고 전폭적인 지원을 해준 분들이 나타났다. 근처 산을 깎아 도로를 만드는 공사 현장에서 흙을 구할 수 있게 되었다. 용산2동행정복지센터와 달서구청을 통해 공원녹지과의 도움을 받아 다양한 꽃과 나무를 심게 되었다.

흉물스럽던 마을 한 구석이 환하게 밝혀지고 도로 주변도 아름다워졌다. 마을주민들도 내 집 꽃밭이라 생각하며 함께 가꿔가기

시작했다. 사업 초창기에는 여전히 쓰레기를 버리는 분들이 있어 직접 피켓을 만들어 세워두고 모두가 함께 보고 키우는 미니정원이 되도록 노력했다. 조성 후에는 물 조달이 어려웠는데, 주민 한 분이 긴 호수를 직접 사 오셔서 본인의 집 수도를 이용하라고 하시고 가뭄에는 아침저녁으로 직접 물을 주기도 했다. 시간이 지나자 미니정원에 자리 잡은 꽃과 나무들의 종류는 더욱 다양해지고 그동안 돌봐 온 보람에 지나갈 때마다 자부심을 느낀다. 식물을 키우면서 느끼는 안정감과 함께 활동하며 나누는 정서적 교감으로 코로나 시대의 심리방역의 역할까지 톡톡히 하고 있다.

미니정원 조성 사업 외에도 와룡산 편백 심기, 용마루길 나무 심기 등 푸른 잎사귀들이 증가할 수 있는 곳이라면 마을 어디든 참여했다. 이처럼 작은 관심과 참여가 불러오는 파급력은 대단했다. 허투루 지나치던 길가의 나무는 내가 직접 심은 나무가 되고 가는 길목마다 애정 어린 눈길이 저절로 가니 내가 사는 곳을 사랑하는 마음도 덩달아 커졌다. 당연히 아끼고 보호하게 되는 선순환의 이치이다.

탄소중립이란 탄소 배출량과 흡수량이 같아 '0'이 되고, 넷제로(Net Zero)라 불리기도 하고 파리기후협약이 어찌고저찌고... 참 어려운 말이다. 그렇지만 우리는 이미 하고 있다. 지금까지 해 왔던 자연사랑과 절약을 통해 꾸준히 실천하는 그 모든 것들이 탄소중립의 한 방안들이다. 탄소중립이라는 원대한 목표에 다다르기 위한 제일 첫 번째 시작점들이자 공동체의 목적지에 도달하기 위한 첫 계단임을 명심하고 책임감과 사명감을 가지고 작은 것부터 나부터 실천하는 생활 습관을 꾸준히 지키도록 노력해야 한다. 🌱



중앙회 소식

2023 01+02 제 6 호



1. 중앙아프리카공화국 공무원에 새마을운동 전파 (12.2.)

중앙회는 지난해 12월 2일 중앙회 2층 회의실에서 중앙아프리카공화국 공무원 5명을 대상으로 새마을 1일 교육을 실시했다. 말레봄보 도나티엔 중앙아프리카공화국 대통령 비서실장을 비롯한 5명의 고위급 공무원은 새마을 1일 교육에서 새마을운동의 기원배경, 추진과정, 성과·사례 등 한국의 새마을운동 성공 노하우와 농촌개발 경험을 자국에 적극 추진하고 싶다는 뜻을 밝히고, 새마을운동중앙연수원 시설과 역사관을 견학했다.



2. 대통령기 제42회 국민독서경진대회 (12.16.)

새마을문고중앙회(회장 박경수)는 지난해 12월 16일 '대통령기 제42회 국민독서경진대회'를 중앙회 대강당에서 개최했다. 올해로 42회째를 맞는 대통령기 국민독서경진대회는 독서문화 생활화 운동을 통해 문화시민으로서 건전한 가치관을 확립하고자 마련됐으며 2022년 한 해 동안 새마을문고 활동을 결산 평가하며 종합평가부문(시도·시군구), 운영부문(새마을작은도서관, 재능기부동아리, 이동도서관), 독후감부문, 편지글부문으로 나뉘어 시군구 및 시도예선대회를 거쳐 중앙본선대회로 평가·시상했다.



5. 새마을운동 청년홍보단 새립(SAELUV) 2기 해단식 (12.22.)

중앙회는 지난해 12월 22일 중앙회 4강의실에서 새마을운동 '청년홍보단 새립(SAELUV)' 2기 해단식을 했다. 새립2기는 총 11개팀(36명)이 5월부터 12월까지 생생한 새마을운동 현장과 새마을운동 기록물 관련 영상을 제작해 새마을운동중앙회 유튜브 채널과 SNS 등에 게시했다. 광대훈 중앙회장은 해단식에서 "8개월이 넘는 긴 시간동안 새마을정신을 시대적 요구에 맞게 창의적인 콘텐츠로 제작한 새립(SAELUV) 2기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며 "앞으로도 새마을운동에 더욱 애정과 관심을 갖고 지켜봐달라"고 당부했다.



6. 새마을운동 대학생 디자인 공모전 (12.23.)

중앙회가 지난해 12월 23일부터 지난 1월 31일까지 '새마을운동 대학생 디자인 공모전'을 개최했다. 공모전은 대학(원)생들이 새롭고 창의적으로 새마을로고를 디자인함으로써 새마을운동에 대한 대학생들의 관심을 높이고, 참여·소통하는 기회의 장을 마련해 홍보 효과를 높이고자 마련됐다. 총 274편의 응모작은 심사위원의 공정한 평가를 거쳐 오는 3월 3일(예정) 중앙회 홈페이지와 SNS계시를 통해 수상작을 발표하고 4월 21일 새마을의 날 기념식 때 시상할 예정이다.



3. 2022 우수마을공동체 경진대회 (12.19.)

중앙회는 지난해 12월 19일 중앙회 대강당에서 마을공동체 관계자 및 발표자, 사무직원, 평가위원 등 1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2 우수 마을공동체 경진대회'를 개최했다. 경진대회는 전국 31개소 시범마을 공동체 중 20개소가 출전하여 사례를 공유했으며 최우수상은 대구 달서구 용산2동 '봄날'마을공동체가 수상해 사업비 500만 원과 상장을 받았다. 대구 달서구 용산2동 '봄날'마을공동체는 다양한 공동체 조직구성을 바탕으로 코로나19 위기극복 심리방역 캠페이션 꽃바구니 만들기, 공한지 미니정원 가꾸기, 휴경기 텃밭 가꾸기 등 지역주민과 함께 따뜻한 공동체 만들기에 앞장섰다.



4. 직장·공장새마을운동중앙협의회 워크숍 (12.20.~21.)

직장·공장새마을운동중앙협의회(회장 전문수)는 지난해 12월 20~21일 1박2일 동안 제주 메종글래드호텔에서 시도·시군구 직장회장단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직장새마을활성화를 위한 워크숍을 진행했다. 전문수 직장·공장새마을운동중앙협의회장은 "2022년 어려운 경제상황에서도 젊은 새마을운동을 위해 물심양면 지원해 주신 직장·공장협의회 회원들에게 진심으로 감사하다"며 "우리의 청년들이 새마을정신으로 지역과 나라를 위해 헌신할 수 있도록 청년새마을운동의 활성화를 위해 힘을 모으자"고 당부했다.



7. 전국 대학새마을동아리 연합 평가대회 (12.28.)

중앙회가 '2022 전국대학새마을동아리 연합 평가대회'를 지난해 12월 27~28일 1박2일 동안 중앙회 대강당에서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회원간 소통과 연대를 강화하고 2022년 한 해 동안 활동한 회원들의 노고를 격려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중앙회장, 시도새마을직원, 대학새마을동아리 회원 등 16개 시도 47개 대학 220여 명이 참석했다. 광대훈 중앙회장은 '청년세대(MZ) 새마을운동의 추진방향'에 관한 특강에서 "대학새마을동아리 회원들 모두 우리 사회가 더욱 밝고 건강한 사회로 나아가기 위해 어려운 이웃에 손 내밀고 따뜻한 말 한마디를 건네는 나눔과 돌봄 역할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8. 현충원 참배로 새해 첫 활동 (1.10.)

광대훈 중앙회장은 지난 1월 10일 오전 새해 첫 공식 일정으로 김한학 사무총장을 비롯한 임직원, 서울 동작구새마을회장단 등과 함께 국립서울현충원을 방문해 순국선열들에 참배했다. 광대훈 회장을 비롯한 방문단은 이날 국립서울현충원에 도착 후 현충탑 앞에서 헌화와 분향, 경례와 묵념 순으로 참배했다. 광 회장은 방명록에 "다시 뛰는 새마을운동, 세계와 함께하는 새마을운동으로" 지구촌 공동번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문구 작성을 끝으로 참배를 마무리했다.

시·도 소식

부산

2023 새마을가족 신년 인사회

부산광역시새마을회(회장 제종모)는 지난 1월 9일 시새마을회관 강당에서 백종현 국회의원 및 이병진 부시장을 비롯한 내빈과 이사, 후원회장 그리고 대학동아리 학생들과 구군 새마을가족 등 1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계묘년 새마을가족 신년 인사회'를 개최했다.



대구

정성으로 만든 행복한 밥상

대구광역시새마을회(회장 최영수)는 지난 1월 11일 대구성서종합사회복지관에서 김건희 대통령 영부인 김기출 시협의회장, 채경애 시부녀회장, 달서구새마을회장단 및 부녀회원들, 대구대학새마을동아리(회장 신훈섭) 회장 등 4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관내 어르신 150여 명에게 급식봉사와 목도리 덧신 양말 등을 넣은 꾸러미를 전달했다.

인천

'다시 새마을운동, 세계와 함께' 보고회

인천광역시새마을회(회장 김익식)는 지난해 12월 6일 인천해버파크호텔 2층 그랜드볼룸에서 '다시 새마을운동, 세계와 함께'라는 주제로 2022 새마을운동 평가보고회와 새마을의 날 기념식을 개최했다. 이날 참가자들은 '기후환경 위기 심각성을 직시하고, 탄소중립 문화조성·대립과 분열이 아닌 상생과 통합으로 사회적 갈등 해소에 앞장서는 공동체 문화 조성·지구촌 공동번영을 위한 새마을운동 전개' 등의 결의문을 채택했다.

광주

2022년 광주광역시 새마을지도자대회

광주광역시새마을회는 '2022 광주광역시새마을지도자대회'를 지난해 11월 29일 광주시청 3층 대강당에서 개최했다. 이날 대회는 한해 동안 새마을회의 활동을 돌아보는 '2022 보람의 현장'을 통해 탄소중립을 위한 나무심기, 취약계층 나눔과 봉사활동 등 새마을정신을 실천하며 땀 흘리는 생생한 현장을 담은 영상을 시청했다.

대전

대학새마을동아리와 연탄 나누기

대전광역시새마을회(회장 양용모)와 대전시 대학새마을동아리연합회(회장 백혜경)는 지난해 11월 18일 서구 도마동 일원에서 행복 나눔 사랑의 연탄 나누기 사업을 전개했다. 이날 관내 8개 대학 지도교수와 대학새마을동아리회원들이 참여했으며 500장의 연탄을 관내 주거취약가구에 전달했다.



울산

제회 새마을가족 한마음체육대회

울산광역시새마을회(회장 정대식)는 지난해 11월 16일 울산 태화강국가정원 일원에서 '제회 울산광역시 새마을가족 한마음체육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대회는 지난 한 해 동안 새마을운동 추진성과를 종합 결산하고 모범적으로 봉사한 일선 새마을지도자의 노고를 격려하기 위해 마련됐다. 1부 행사는 난타공연을 시작으로 유공자 표창, 대회사, 축사, 새마을노래 제창 등이 진행됐으며 2부 행사에서는 '다시 새마을운동, 세계와 함께' 추진을 위한 결속력 강화의 체육행사로 추진됐다.

세종

캄보디아 방문 국제협력사업 추진

세종특별자치시새마을회는 지난해 11월 29일 캄보디아 새마을운동 시범마을에 인접한 키리릭스메이 캄 트봉 마을을 방문해 국제협력사업을 진행했다. 현지를 방문한 세종시새마을회장단 18명은 주민들에게 400여점의 의류와 300여점의 학용품 및 축구공 등을 전달했다.

이번 사업은 새마을운동중앙회가 추진하는 4개 시범마을 사업과 연계해 추진했으며 캄 트봉 마을의 숙원사업인 저수지 축조와 펜스 설치 사업을 진행했다.



경기

참좋은 사랑의 헌혈증 기증

새마을지도자 경기도협의회(회장 양운호)는 지난해 12월 27일 대한적십자사 경기혈액원에서 관내 새마을지도자들이 모은 헌혈증 580매를 전달하는 기증식을 가졌다. '사랑의 헌혈증서 기부'는 새마을지도자 경기도협의회가 지난해 6월 14일(세계 헌혈자의 날)부터 지난해 12월까지 혈액 수급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진행됐다.



강원

2022 강원도 새마을지도자대회

강원도새마을회(회장 박형배)는 지난해 11월 17일 정선군 아리랑센터에서 강원도새마을지도자대회를 개최했다. 18개 시·군 회장단 등 1천여 명이 참가한 이날 대회는 정선군립 아리랑예술단의 정선아리랑 식전 공연을 시작으로 강원도 새마을운동 실천 활동 영상상영, 새마을운동 유공자 포상, 2023 강원도새마을운동 실천 다짐 결의문 낭독, 새마을노래 제창 순으로 진행됐다.



충남

2023년 충청남도새마을가족 신년 인사회

충청남도새마을회(회장 이경옥)는 지난 1월 10일 도새마을회 회의실에서 '2023년 충청남도새마을가족 신년인사회'를 개최했다. 이날 신년인사회에는 이경용 충청남도새마을회장을 비롯한 충남도청 이필영 행정부지사 및 충남 새마을가족 등 100여 명이 참석해 덕담을 나누고 2023년 충남도민의 행복 추구 및 새마을가족의 이웃사랑 실천 다짐을 결의했다.



2023 01+02 제 6 호

전북

대학새마을동아리, 열정 ZIP발표회

전라북도새마을회(회장 구자강)는 지난해 12월 21일 도새마을회 회의실에서 '대세의 꿈! 열정 ZIP 발표회'라는 제목으로 한 해 동안 활발히 활동한 대학새마을동아리 회원들의 활동성과를 발표하는 자리를 가졌다.



전남

중대재해예방 비상상황대처 훈련

전라남도새마을부녀회(회장 최경옥)는 지난해 12월 19일 도새마을회관에서 시군부녀회장 및 사무직원 3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안전수준 향상과 중대재해예방을 위해 재난대응 비상상황 대처훈련을 실시했다. 이번 비상상황대처훈련은 응급상황 발생 시 잠재적 사고와 비상상황을 사전에 대비해 안전사고 방지 및 인명피해 최소화 등 안전문화 확산을 위해 추진됐다.

경북

경상북도 새마을지도자대회

경상북도새마을회(회장 이종평)는 지난해 12월 9일 문경 국군체육부대 실내체육관에서 23개 시군 새마을지도자 등 2,0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2 경북 새마을지도자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대회는 한 해 동안의 새마을운동 추진 성과를 평가하고, 새마을지도자들이 서로 화합하고 소통하면서 최근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시대 흐름에 맞게 새마을운동이 새로운 모습으로 발전해 나가고자 하는 결의를 다지기 위해 마련됐다.

경남

2022년도 칭찬한마당축제

경상남도새마을부녀회(회장 한정여)는 지난해 11월 29일 창원컨벤션센터에서 김현미 경남도청 여성정책과장과 이현순 경남도청 여성특보, 안화영 도새마을회장 및 회원단체장을 비롯한 칭찬추진공 8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2년도 칭찬한마당축제'를 개최했다. 이번 축제에서는 시군별 자랑스러운 칭찬추진공으로 추천된 창원시 차성천 씨를 비롯한 21명에게 도부녀회장의 칭찬패와 기념품을 전달하고 격려했다.



제주도

캄보디아 시범마을에 지구촌새마을운동 펼쳐

제주특별자치도새마을회(회장 이기창)는 국제새마을 협력사업의 하나로 지난해 12월 26일부터 30일까지 캄보디아 롬두올코민마을을 방문해 5가구에 돈사를 지어주고, 가구당 씨돼지 2마리를 지원하는 지구촌새마을운동을 추진했다.



이북5도

내 고향 재건 위한 '통일준비 새마을운동'추진

이북5도새마을회(회장 조성원)는 지난해 12월 9일 서울 구기동 이북5도청 대강당에서 2022년도 이북5도 새마을운동을 결산하고 새마을운동에 헌신적으로 봉사해온 유공 새마을지도자들의 노고를 격려하기 위한 '2022 이북5도 새마을지도자대회 및 송년회'를 개최했다.

현장은 지금

공동체 문화 조성

- 문고 서울 종로구지부(회장 채범규)는 지난해 12월 29일 사직동 카페 두드림에서 '시와 그림과 소리'라는 제목으로 '2022년 시 낭송회'를 개최했다. 이날 최우수작은 송인1동 박춘자 회원의 백일홍(정순황후의 꽃)이 차지했다.
- 문고 서울 중구지부(회장 남준희)는 지난해 12월 13일 문학의 집 서울에서 독서보급을 통한 구민의 정신계발과 문화향상을 위해 '제42회 대통령기 독서경진대회 시상식'을 가졌다. 이날 청구동 문고 김시연 학생이 대상을 수상했다.
- 서울 용산구새마을회(회장 지영환)는 지난해 12월 29일 구새마을회 회의실에서 2022년 재난안전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구단체장이 참여한 가운데 김환학 중앙회 사무총장을 초청해 재난안전 및 향후 대응책을 논의했다.
- 서울 중랑구부녀회(회장 최순남)는 지난해 12월 9일 중랑구청에서 '따뜻한 겨울나기 사업 성금'으로 100만 원을 전달했다. 이날 전달한 성금은 새마을알뜰장터에서 판매한 수익금으로 마련했다.
- 서울 성동구협의회(회장 정길동)는 지난 1월 11일 설 명절을 앞두고 성동구청 대강당에서 관내 홀몸 어르신들에게 떡국떡, 사골국 등이 담긴 '온정 꾸러미'를 전달했다.



- 문고 서울 광진구지부(회장 권종형)는 지난해 12월 21일 구립 능동 꿈아이어린이집에서 5~7세 아동 50여 명을 대상으로 '광진구어린이와 함께하는 할머니들의 옛날이야기' 창작동화를 공연했다.
- 문고 서울 성북구지부(회장 서호정)는 지난해 12월 19일 성북구청 구청장실에서 '희망은돌 따뜻한 겨울나기 불우이웃돕기 성금 1백만 원을 전달했다.

- 서울 도봉구지회(회장 황이선)는 지난해 11월 29일 해경물류 주차장에서 새마을지도자와 북한이탈주민, 국군 장병 등 총 5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2022년 사랑의 김장김치 나눔'사업을 추진해 관내 취약계층 280세대에게 전달했다.



- 서울 서대문구 북가좌1동부녀회(회장 허영아)는 지난해 11월 23일 코로나19 이후 약 3년 만에 홀몸 어르신 20여 명을 초청해 생신잔치를 열어드리고 건강과 행복을 기원했다.
- 서울 마포구협의회(회장 김종덕)는 지난해 12월 17일 '든든한 한끼 사랑으로 행복'이란 슬로건으로 '2022 사랑의 쌀 나눔' 사업을 펼치고, 관내 생활형편이 어려운 이웃에게 쌀을 전달했다.
- 인천 중구새마을회(회장 윤경원)는 지난 1월 16일 중구청을 방문해 김정현 구청장에게 설맞이 사랑의 떡국떡 300세트(360만 원 상당)를 기탁했다. 이날 기탁된 떡국떡은 지역 내 홀몸 어르신 등 형편이 어려운 소외계층 300가정에 전달됐다.
- 인천 동구 송림6동부녀회(회장 정정란)는 지난해 12월 27일 갈비탕, 선지탕, 설렁탕 등 국거리 5종 세트를 직접 포장, 지역 내 홀몸 어르신 등 50여 세대에 전달하는 사랑의 진국 나눔 사업을 전개했다.
- 인천 미추홀구새마을회(회장 유기선)는 지난해 12월 15일 이영훈 미추홀구청장을 비롯한 내빈들과 새마을지도자 16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환경 개선 및 나눔문화 확산을 위한 마을공동체 정립'을 주제로 2022년 인천 미추홀구 새마을평가대회를 개최했다.



서울 · 인천 · 강원

- 인천 연수구 옥련2동부녀회(회장 장효순)는 지난해 12월 말 자생단체(옥련2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방위협의회, 주민자치회, 통장자율회, 자율방범대 등)와 약 120kg의 떡국떡과 200kg(10kg 20포) 쌀을 모아 지역 취약계층에 전달하는 '좁도리쌀 운동'을 추진했다.
- 인천 남동구 간석4동부녀회(회장 문순례)는 지난 1월 16일 설 명절을 맞아 지역 내 저소득층에게 전달될 떡국떡(2kg) 100상자를 행정복지센터에 전달했다.
- 문고 강원 춘천시지부(회장 이희순)는 지난 1월 16일 떡국떡을 판매한 수익금으로 새마을한과 100상자(120만 원 상당)를 구입해 춘천북부노인복지관(관장 박재호)에 전달했다. 후평2동부녀회(회장 이순분)는 후평2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위원장 박정임)와 지난 1월 17일 떡국떡과 사골국, 만두, 밀반찬을 준비해 취약계층에 전달했다.
- 강원 원주시새마을회(회장 이민선)는 지난 2월 4일 행정복지센터에서 열린 호저면 적사대회에 참석했다. 개운동협의회(회장 송중길)는 지난 1월 20일 행정복지센터에서 설 명절을 맞아 라면 10상자를 전달했다.



- 강원 동해시 천곡동협의회(회장 장주선)와 부녀회(회장 진복남)는 지난해 12월 31일 관내 주거환경이 열악한 장애인 가정을 찾아 대청소와 장판을 교체하는 사랑의 집 고치기 사업을 추진했다.
- 강원 속초시 영랑동협의회(회장 이우)는 지난해 12월 27일 연말을 맞이해 취약계층 및 홀몸 어르신들을 위해 성금 170만 원(성금 100만 원, 후원물품 70만 원)을 주민센터에 기탁했다.



- 강원 삼척시 남양동협의회(회장 박영환)와 부녀회(회장 김정수)는 지난 1월 9일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2023년 해맞이 일출 기념제 수익금 625,000원을 이웃돕기성금으로 기탁했다.
- 강원 횡성군 안흥면협의회(회장 고종옥)는 지난 1월 17일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지역 저소득층 생활안정자금 40만 원을 기탁했다. 갑천면부녀회(회장 허정자)는 지난 1월 16일 설을 앞두고 가족과 떨어져 홀로 명절을 지내는 주민들을 위해 '사랑의 떡국떡 나눔 활동'에 나서 모두 85가구에 떡국떡과 간식을 직접 전달하고 위문했다.



탄소중립 실천

- 서울 노원구협의회(회장 황두문)와 부녀회(회장 이종선)는 지난해 12월 9일 중계근린공원에서 지난 1년 동안 모아온 다시 입을 수 있는 옷, 고철류 등을 모아 '재활용품 모으기 대회'를 개최해 탄소중립을 실천했다.



- 인천 중구부녀회(회장 한만분)는 지난 1월 17일 자생단체연합회와 함께 관내 쓰레기 상습 무단투기 지역에서 쓰레기를 수거하고 시민들에게 올바른 분리배출 방법을 홍보했다.

부산 · 대구 · 울산 · 경기 · 세종 · 이북5도 · 제주

공동체 문화 조성

- 문고 부산 중구 대청동분회(회장 이소영)는 지난 1월 9일 주민센터에서 1%나눔 후원금 '따뜻한 사랑 나눔' 사업을 펼쳐 50만 원 상당의 문화상품권을 관내 취약계층 아동 10명에게 전달했다.
- 부산 서구 서대신3동부녀회(회장 이수천)는 지난 1월 11일 관내 일원에서 밑반찬을 만들어 홀몸 어르신과 취약계층 20세대에 전달했다.
- 문고 부산 영도구 영선1동분회(회장 김성희)는 지난 1월 6일 행정복지센터에서 방과후 프로그램인 내가 만든 그림책 교실에서 수강생들이 제작한 그림책을 전달하는 '1인 출판 그림책 전달식'을 가졌다.



- 부산 부산진구 가야1동협의회(회장 윤장근)는 지난해 12월 28일 주민센터를 찾아 관내 취약계층을 위한 성금 326만 원을 전달했다. 개금2동부녀회(회장 장말임)도 지난 1월 4일 이웃돕기 성금 69만 원을 주민센터에 기탁했다.
- 부산 동래구 복산동부녀회(회장 엄순덕)는 지난 1월 11일 관내 홀몸 어르신 30가구에 떡국떡 2kg씩을 전달하는 설맞이 떡국떡 나눔 사업을 펼쳤다.
- 부산 해운대구 반여3동부녀회(회장 김은숙)는 지난 1월 16일 설맞이 사랑의 떡국떡 나눔 사업으로 행정복지센터에서 떡국떡을 포장해 관내 취약계층 30세대에 전달했다. 우2동협의회(회장 이해재)는 지난 1월 8일 사랑의 집고치기 사업으로 관내 홀몸 어르신 가정을 찾아 형광등 및 세면대, 샤워기 수전 등을 교체했다.
- 부산 금정구 남산동협의회(회장 전현배)는 지난해 12월 24일 관내 홀몸 어르신 가정을 방문해 도배와 장판을 교체하고 전등을 수리하는 사랑의 집 고쳐주기 사업을 펼쳤다.
- 문고 부산 연제구 거제2동분회(회장 오미애)는 지난해 12월 29일 사랑의 1%나눔 사업을 펼쳐 관내 취약계층 6세대에 케이크(11만 원 상당)를 전달했다. 같은 날 거제4동분회(회장 이주영)도 관내 저소득층을 위한 나눔 냉장고에 라면, 즉석 국, 조미김

등 식료품을 지원했다.



- 부산 수영구 민락동부녀회(회장 박서현)는 지난달 1월 6일 행정복지센터에서 떡국떡과 무릎담요를 관내 취약계층 30세대에 전달했다.
- 부산 사상구 주례3동부녀회(회장 황명숙)는 지난해 12월 30일 폐지, 캔, 빈병 등 재활용품을 수거 판매한 수익금 160여만 원을 어려운 이웃을 위한 행정복지센터에 전달했다.
- 대구 북구 무태조야동협의회(회장 김주표)는 지난 1월 3일 관내 취약계층에게 전달할 라면 10상자와 치킨 10마리, 피자 3판을 행정복지센터에 기탁했다.
- 대구 수성구 만촌1동부녀회(회장 김천순)는 지난 1월 8일 관내 어려운 이웃을 위해 라면, 생필품 등을 담은 행복꾸러미 60개(120만 원 상당)를 행정복지센터에 기탁했다.



- 대구 달서구 용산2동부녀회(회장 엄해란)는 지난 1월 16일 관내 일원에서 이웃돕기 성금 마련을 위해 떡국떡을 포장, 판매했다.
- 문고 울산 중구 반구1동분회(회장 장순녀)는 관내 저소득 취약계층 주민들이 식품과 물품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매주 금요일 '울산 큰 애기 사랑 나눔 냉장고'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 울산 북구 농소2동협의회(회장 김영식)와 부녀회(회장 김영숙)는 지난 1월 3일 저소득층 생계비와 의료비 지원을 위한 성금

부산 · 대구 · 울산 · 경기 · 세종 · 이북5도 · 제주

50만 원을 행정복지센터에 기탁했다.

- 울산 울주군 두동면협의회(회장 강석만)와 부녀회(회장 오영미)는 지난 1월 10일 관내 저소득층을 위한 생필품과 식료품을 행정복지센터에 전달했다.



- 경기 수원시새마을회(회장 홍순주)는 지난해 12월 28일 새마을회관에서 희망·행복1% 후원금 모금 새마을 이불전달식을 갖고, 겨울 이불 150채를 관내 취약계층에 전달했다. 부녀회(회장 김옥자)도 12월 15일 아동양육시설과 청소년 공동생활가정에 간식을 지원하는 '금쪽아 간식마작' 사업을 펼쳐 100여 명에게 간식과 반찬을 전달했다.



- 경기 용인시 처인구 양지면부녀회(회장 정구자)는 지난 1월 10일 용동중학교 졸업생 3명에게 각각 장학금 30만 원을 전달했다.
- 경기 안산시협의회(회장 고태연)는 지난 1월 13일 설을 앞두고 관내 행복나눔터에서 떡국떡과 사골육수를 담은 설맞이 응원키트를 제작해 관내 홀몸 어르신 200여 가구에 전달했다.
- 직장·공장 경기 남양주시협의회(회장 김홍철)는 지난 1월 9일 시청 광장에서 관내 취약계층을 위한 컵라면 400상자를 복지재단에 전달했다. 진건읍협의회(회장 이종갑)는 지난해 12월 30일 관내 어려운 이웃을 돕기 위한 성금 100만 원을 행정복지센터에 전달했다.

- 경기 안양시 안양4동협의회(회장 조현대)는 지난 1월 12일 설을 앞두고 휴지, 두유 등 생필품을 담은 꾸러미 60개를 관내 취약계층 가구에 전달했다.
- 경기 평택시 진위면협의회(회장 유형수)는 지난 1월 10일 관내 어려운 이웃을 돕기 위해 쌀(4kg짜리) 74포대와 휴경기에서 직접 재배·수확한 콩 111kg을 행정복지센터에 기탁했다.
- 경기 평택시새마을회(회장 이천석)는 지난 1월 20일 시청 대외협력실에서 소외이웃돕기 후원금 750만 원을 평택시에 전달했다.



- 경기 의정부시 흥선동부녀회(회장 정미자)와 녹양동부녀회(회장 전춘화)는 지난 1월 16일 관내 저소득 취약계층을 위한 떡국세트를 마련해 시의회에 전달했다.
- 경기 군포시새마을회(회장 서태연)는 지난 1월 1일 신년 해맞이를 위해 반월호수공원을 찾은 시민들에게 떡국떡 2,000그릇을 대접했다.
- 경기 이천시 장호원읍협의회(회장 박창기)와 부녀회(회장 박금순)는 지난 1월 9일 설을 앞두고 관내 취약계층을 위한 선물꾸러미 120개를 행정복지센터에 기탁했다.
- 경기 오산시새마을회(회장 한웅석)는 지난 1월 1일 새해 해돋이를 보기 위해 독산성을 찾은 시민들을 위해 떡국떡 나눔 활동을 펼쳤다. 1월 10일에는 대원동부녀회(회장 심민숙)가 떡국떡과 곰탕을 마련해 관내 취약계층 50세대에 전달했다.
- 직장·공장 경기 양주시협의회(회장 오수영)는 지난해 12월 30일 시청을 찾아 관내 저소득층을 위한 성금 100만 원을 기부했다.
- 경기 구리시 수택1동협의회(회장 박종학)와 부녀회(회장 강복남)는 지난 1월 11일 설을 앞두고 관내 홀몸 어르신 45가구에 전달할 사골국과 떡국떡 꾸러미를 행정복지센터에 기탁했다.
- 경기 안성시 서운면부녀회(회장 권영자)는 지난해 12월 21일

부산·대구·울산·경기·세종·이북5도·제주

서안성푸드뱅크에서 기탁받은 행복꾸러미(식품 및 생활용품 등)를 관내 홀몸 어르신과 취약계층 100가구에 전달했다.

- 경기 포천시 소흘읍협의회(회장 이진형)와 부녀회(회장 김근자), 내촌면부녀회(회장 조순호)는 지난 1월 16일 각각 관내 일원에서 사랑의 떡 나눔 사업을 펼쳐 관내 홀몸 어르신 가정에 떡국떡을 전달했다.
- 경기 양평군 양평읍부녀회(회장 강미수)는 지난 1월 19일부터 21일까지 관내 마트에서 전 판매 사업을 펼쳐 저소득층 가정과 홀몸 어르신 등 어려운 이웃을 돕기 위한 성금을 마련했다.
- 경기 과천시 중앙동부녀회(회장 장난희), 문원동부녀회(회장 이정연), 별양동부녀회(회장 김현자), 부림동부녀회(회장 이성숙), 갈현동부녀회(회장 이아랑), 과천동부녀회(회장 김재순)는 지난 1월 5일 설을 앞두고 각각 관내 어려운 이웃을 위한 성금 100만 원(과천동 70만 원)을 시정에 기탁했다.
- 경기 가평군협의회(회장 손종기)와 부녀회(회장 전양순)는 지난해 12월 28일 관내 어려운 이웃을 돕기 위한 성금 200만 원을 군청에 전달했다.
- 경기 연천군 연천읍협의회(회장 안성문)와 부녀회(회장 이옥순)는 지난해 12월 26일 관내 저소득 취약계층 70가구를 위한 사랑의 물품 나눔 사업을 펼쳐 백미 10kg과 라면 등을 전달했다.
- 제주 제주시 건입동부녀회(회장 문명선)는 지난 1월 13일 설을 앞두고 관내 저소득층 가구 지원을 위해 계란, 라면, 즉석 밥 등 100만 원 상당의 식품을 행정복지센터에 기탁했다. 같은 날 삼양동부녀회(회장 양혜숙)도 재활용품 판매 수익금으로 설맞이 이웃사랑 성금 200만 원을 마련해 주민센터에 전달했다.



- 제주 서귀포시 송산동협의회(회장 한영옥)와 부녀회(회장 서경혜)는 지난해 12월 28일과 1월 13일에 각각 이웃돕기 성금 100만 원과 50만 원을 주민센터에 기탁했다.

탄소중립 실천

- 부산 기장군새마을회(회장 박용주)는 지난 1월 18일 설맞이 도시 환경정비의 날을 맞아 관내 쓰레기 수거와 불법 광고물 제거, 가로변 화단 정비 등 새마을대청소를 실시했다.
- 경기 포천시새마을회(회장 이경목)는 지난해 12월 8일 협의회(회장 조규석), 부녀회(회장 이정순)와 함께 관내 하천정화활동으로 유용미생물군(EM) 훈공 던지기를 실시하고, 미꾸라지를 방류했다.
- 세종 부강면협의회(회장 원광희)와 부녀회(회장 송미자)는 지난 1월 9일 부강역에서 시가지까지 설맞이 마을 환경정화활동을 펼쳤다. 금남면협의회(회장 홍선의)와 부녀회(회장 송은순)도 지난 1월 12일 설을 앞두고 용포리 일원에서 폐기물과 쓰레기를 수거했다.



캠페인

- 대구 달서구 신당동협의회(회장 박시완)와 부녀회(회장 장태정)는 지난해 12월 26일 관내를 순회하며 범죄 및 안전사고 예방 캠페인을 실시했다.
- 경기 군포시새마을회(회장 서태연)는 지난 1월 4일과 11일 금정역과 산본역에서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추가 접종 안내와 참여 캠페인을 펼쳤다.



대전·광주·충북·충남·경북

공동체 문화 조성

- 대전 중구 문창동부녀회(회장 정경순)는 지난 1월 16일 행정복지센터에서 새해를 맞아 관내 홀몸 어르신 150가정에 설맞이 떡국떡 나눔사업을 전개했다.



- 대전 동구 용운동부녀회(회장 육경자)는 지난 1월 12일 행정복지센터 내 취약계층을 위한 나눔 냉장고에 후원받은 돼지목심살 3kg과 채소, 과일, 김 등을 소분해 넣는 채움활동을 전개했다. 가양1동협의회(회장 전진세)는 지난 1월 13일 관내 새마을금고에서 회원들이 십시일반 모금한 백미 10kg 24포대를 홀몸 어르신, 어려운 이웃에 전달했다.
- 광주 동구 지원2동협의회(회장 정성기)는 지난 1월 11일 설 명절을 맞아 행정복지센터에서 관내 취약계층에 화장지와 라면을 전달했다. 동명동부녀회(회장 김영인)는 지난해 12월 23일 전남지역 폭설로 막힌 시민통행로 확보를 위해 제설작업을 실시했다.
- 광주 서구새마을회(회장 최덕환)는 지난해 12월 28일 전남지역 폭설로 인해 쌓인 눈을 치우는 제설작업을 실시했다.



- 충북 청주시 내덕2동협의회(회장 조성국)와 부녀회(회장 함희정)는 지난 1월 17일 행정복지센터에서 설을 맞아 관내 소외계층 및

- 홀몸 어르신 등 50가정에 떡국떡과 국수, 꿀 등을 전달했다. 용암1동협의회(회장 성락원)와 부녀회(회장 오유빈)도 1월 11일 행정복지센터에서 관내 어려운 이웃을 위해 50만 원 상당의 라면을 기부했다. 모충동부녀회(회장 이홍순)는 1월 12일에 자원재활용품 수거활동을 통해 얻은 수익금 일부를 모충초등학교에 전달했다. 오창읍협의회(회장 박중무)와 부녀회(회장 정진환)는 지난 1월 6일 관내 산모들을 위한 168만 원 상당의 미역 7상자(210개)를 읍사무소에 전달했다. 사직2동협의회(회장 김덕구)와 부녀회(회장 배한미)는 지난 1월 12일 관내 저소득 50가구를 위한 설맞이 떡국떡, 재래김 등을 행정복지센터에 전달했다.
- 충북 제천시협의회(회장 신구상)와 부녀회(회장 김진희)는 지난 1월 13일 주민자치위원회, 통장협의회, 바르게살기위원회 등 지역사회단체와 행정복지센터에서 어려운 이웃을 돕기 위한 백미, 라면, 선물세트 등 470여만 원 상당의 물품을 전달했다. 교동부녀회(회장 정근옥)는 지난 1월 9일 설 명절을 맞아 관내 홀몸 어르신을 위한 떡국떡과 사골국물을 전달했다.
- 충북 충주시 호암직동협의회(회장 정기환)와 부녀회(회장 강유미)는 지난 1월 17일 행정주민센터에서 관내 홀몸 어르신, 중증장애인 등 30가구에 떡국떡, 미역 등을 전달했다. 연수동협의회(회장 장준기)와 부녀회(회장 우혜진)는 지난 1월 13일 충주시청을 방문해 어려운 이웃돕기 성금 200만 원을 기탁했다.



- 충북 보은군 산외면협의회(회장 유재영)와 부녀회(회장 최정애)는 지난 1월 25일 면사무소에서 지난해 모금된 행복1% 후원모금액으로 떡국떡을 마련해 관내 마을회관과 어려운 이웃에 전달했다.
- 충북 옥천군 군서면협의회(회장 안성원)와 부녀회(회장 이선임)는 지난해 12월 20일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어려운 이웃을 위해 성금 100만 원을 기탁했다.

대전 · 광주 · 충북 · 충남 · 경북

- 충북 영동군 용산면협의회(회장 권용하)는 지난 1월 16일 면사무소에 설 명절을 앞두고 소외된 이웃을 위한 사랑의 성금 100만 원을 전달했다.
- 충남 천안시 원성1동부녀회(회장 오정숙)는 지난 1월 11~12일 이틀간 설 명절을 맞아 사골국, 떡국떡, 나박김치 등을 준비해 관내 취약계층 80세대에 전달하며 안부를 물었다.



- 충남 공주시 중학동협의회(회장 정인묵)는 지난 1월 17일 행정복지센터에 홀몸 어르신 등 취약계층이 동절기 한파에 따뜻하게 보낼 수 있도록 전기요 8개(30만 원 상당)를 전달했다. 탄천면협의회(회장 김지태)와 부녀회(회장 전순희)는 지난해 12월 29일 관내 24개 경로당과 어려운 이웃에게 사랑의 떡국떡 240kg을 전달했다.
- 충남 보령시 대천1동부녀회(회장 한은재)는 지난해 12월 26일 행정복지센터에 관내 저소득 취약계층 가구 아이들을 위한 과자 선물세트 30상자를 전달했다.
- 충남 서산시협의회(회장 송영수)는 지난 1월 13일 시새마을회관에서 읍면동회장단이 참여한 가운데 우리동네 안전지킴이 안전용품을 전달했다. 고북면협의회(회장 윤병춘)도 같은 날 행정복지센터에서 설맞이 사랑의 떡국 나눔활동을 펼치고 관내 형편이 어려운 이웃 262가정에 2kg씩, 58개소 경로당에 4kg씩 전달했다.
- 충남 아산시새마을회(회장 최동석)는 지난 1월 6일 관내 어려운 이웃 2가구에 500장씩 총 1,000장의 연탄을 전달하는 '따뜻한 온도 사랑 나눔 연탄 릴레이' 활동을 펼쳤다.
- 충남 정미면협의회(회장 김낙범)와 부녀회(회장 김연란)는 지난 1월 4일 승산리 화재현장을 찾아 전소피해를 입은 어려운 이웃에게 위로금 20만 원을 전달했다. 당진시지회(회장 한민섭)는 지난 1월 10일 지회 별관에서 장독정리와 메주 건조작업을 펼쳤다.



- 경북 포항시 환영동협의회(회장 김종우)는 지난 1월 16일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어려운 이웃의 따뜻한 설 명절나기를 위한 성금 30만 원을 전달했다. 부녀회(회장 고정선)도 같은 날 어려운 이웃에 전달할 40만 원 상당의 떡국떡을 준비해 정원석 시의원에서 전달했다. 두호동협의회(회장 정삼식)와 부녀회(회장 장은옥)는 지난 1월 16일 행정복지센터에서 설맞이 불우이웃 돕기 성금 50만 원을 전달했다.
- 직장 · 공장 경북 경주시협의회(회장 장영준)는 지난 1월 7일 경주역 광장에서 2023년 다시 한 번 힘내어 달려보자는 메시지로 시민에게 국밥나누기 활동을 펼쳤다.



- 경북 안동시부녀회(회장 김경란)는 지난 1월 1일 24개 읍면동부녀회장들이 해맞이 행사에 참가한 1,100여 명의 시민에게 떡국을 대접했다. 서구동부녀회(회장 박숙이)는 지난 1월 11일 행정복지센터에서 민족 최대의 명절 설을 앞두고 관내 홀몸 어르신 등 어려운 이웃 120가구에 130만 원 상당의 떡국떡 160kg과 계란 5판을 전달했다.
- 경북 구미시 진미동협의회(회장 현충현)와 부녀회(회장 김수현), 교통봉사대 구미시지대(대장 정동원)는 지난해 12월 31과 지난 1월 1일 동락공원에서 열린 타종식과 해맞이 행사에서 교통안내 활동과 급수봉사를 펼쳤다.
- 경북 문경시 점촌3동협의회(회장 지용현)와 부녀회(회장 서순옥)는 지난 1월 11일 2022년 전개한 사업 수익금 70여만 원을

대전 · 광주 · 충북 · 충남 · 경북

- 관내 초 · 중 · 고등학교에 장학금으로 전달했다.
- 경북 경산시 중앙동부녀회(회장 백정숙)는 지난해 12월 21일 행정복지센터에서 동지를 맞아 100여 명의 홀몸 어르신에게 대접했다.
- 문고 경북 군위군지부(회장 정유석)는 지난해 12월 7일 군민들의 독서문화 수준을 높이고 '책 읽는 즐거움, 행복한 문화 공동체운동' 실현을 위한 알뜰도서관 교환시장을 개최했다.

탄소중립 실천

- 대전 동구 산내동부녀회(회장 김향자)는 지난 1월 12일 2023년 탄소중립 실천을 위해 첫 번째 활동으로 다시 입을 수 있는 옷 50kg을 수거했다.
- 대전 중구 문화1동부녀회(회장 최은희)는 지난 1월 16일 관내에서 자생단체 회원들과 담배꽂조와 쓰레기를 줍는 새마을줍깅데이를 실시했다. 석교동협의회(회장 고주현)와 부녀회(회장 김선희)도 지난 1월 12일 석교동 돌다리 인근에서 새마을 짝사랑 줍깅데이 활동을 펼쳤다.
- 광주 동구 지산1동부녀회(회장 김진숙)는 지난 1월 9일 우유팩(4.4KG)을 수거해 화장지와 교환하는 자원재활용 활동을 펼쳤다. 교환한 화장지는 관내 홀몸 어르신 가정에 전달했다.
- 충남 천안시 동면협의회(회장 최범석)와 부녀회(회장 이인숙)는 지난 1월 16일 설 연휴 기간 주민과 방문객들이 깨끗하고 쾌적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도로변, 마을 안길에 방치된 쓰레기를 수거하는 '설맞이 대청소'를 실시했다.
- 경북 포항시 오천읍부녀회(회장 서정선)는 지난 1월 14일 읍민복지관주변에서 '설맞이 클린데이' 환경정화 활동을 실시했다. 장량동부녀회(회장 김순애)는 지난 1월 11일 현대아파트 후문 인근에서 불법쓰레기 단속 활동을 펼쳤다.



- 경북 문경시 산양면협의회(회장 김경훈)와 부녀회(회장 고정임)는 지난 1월 16일 새마을창고에서 자원 재활용 및 다시 입을 수 있는 옷 분류작업을 실시했다. 문경읍협의회(회장 윤정훈)와 부녀회(회장 전순남)는 관내 온천지구를 중심으로 설맞이 환경정화활동을 펼쳤다.
- 경북 경산시협의회(회장 강홍준)는 지난해 12월 27일 하양 대조리운동장에서 흡살리기 운동의 일환으로 폐비닐 수거 및 정리작업을 전개했다.



새마을운동 세계화

- 경북 영주시새마을회(회장 홍수성)는 지난해 12월 22일부터 26일까지 라오스 백옴구 파쿠양 새마을 시범마을을 방문했다. 방문단은 파쿠양 마을과 새마을 시범마을 조성사업 협약을 체결했다. 이후 사업 현장을 둘러본 뒤 초등학교 학생들에게 학용품을 전달하고 마을주민들과 한국-라오스 간 우정을 다졌다. 시새마을회는 5개년(2021년~2025년) 계획으로 마을 진입로 정비, 복합영농, 공동 경작 등을 통한 소득 증대사업과 새마을운동의 광역적 연계화를 통한 소득사업 판로 확대 및 유통 강화를 추진하고 있다.



전북 · 전남 · 경남

공동체 문화 조성

• 전북 전주시새마을회(회장 원석)는 협의회(회장 박창석), 부녀회(회장 강영이)와 함께 지난 1월 10일 설날을 앞두고 관내 홀몸 어르신, 소년소녀가장, 장애우, 불우시설 등 소외 이웃 200세대에 떡국떡을 전달했다.



- 전북 군산시 임피면협의회(회장 이희풍)는 지난 1월 11일 이웃돕기 성품으로 330만 원 상당의 등유 쿠폰을 면사무소에 기탁했다.
- 전북 익산시새마을회(회장 장오준)는 지난해 12월 21일 어르신 200여 명을 모시고 직접 만든 떡국과 국화빵, 과일을 대접하며 따뜻한 겨울나기를 위한 '사랑의 떡국 나눔' 활동을 펼쳤다.
- 전북 정읍시 연지동부녀회(회장 박광애)는 지난 1월 10일 설 명절을 맞아 연지동 소재 상암마트 후원으로 마련된 쌀 40kg으로 떡국떡을 만들어 경로당과 홀몸 어르신 등 소외 이웃 100여 명에게 전달했다.
- 전북 완주군 삼례읍부녀회(회장 이은경)는 지난해 12월 28일 미역 판매, 농약빈병 수거 등을 통해 마련한 수익금 200만 원으로 관내 저소득층 가정의 학생 4명을 선정해 장학금을 전달했다.
- 전북 장수군지회(회장 이상수)는 지난해 12월 12일 지역 내 동절기 취약계층 이웃들의 겨울철 난방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관내 저소득층 가정 3세대에 사랑의 연탄 나눔을 통해 1,047장의 연탄을 전달했다.



- 전북 임실군 신덕면협의회(회장 신기식), 부녀회(회장 최복임)는 지난해 12월 16일 관내 어르신 200명을 대상으로 이웃사랑의 마음을 담은 '사랑의 털신 나눔' 사업을 추진했다.
- 전남 목포시 죽교동부녀회(회장 박영아)는 지난해 12월 18일 행정복지센터에서 자매결연 단체인 신안군 압해읍부녀회와 함께 김장김치 300포기를 담가 관내 취약계층 80여 세대와 경로당 3개소에 전달하는 '2022 사랑의 김장 김치 행사'를 개최했다.
- 전남 여수시협의회(회장 이기전)는 지난해 12월 5일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어려운 이웃 3기구에 각 300장씩 총 900장의 연탄을 전달했다. 마평동협의회(회장 김유문), 마평동부녀회(회장 임혜정)는 지난해 12월 19일 겨울이불 및 전기요 등 겨울나기용품을 관내 다문화가정 10세대에 전달했다.
- 전남 나주시새마을회(회장 신성수)는 부녀회(회장 김순례) 회원들과 함께 지난 1월 1일 나주 금성산 노적봉에서 해맞이 떡국 나눔을 펼쳤다.



- 전남 광양시부녀회(회장 황호순)는 지난해 12월 22일 광양제철소 압연부문(부소장 박종일)과 (사)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광양시지회를 방문해 취약계층 시각장애인 20가구에 생필품 '더불어 행복꾸러미'를 전달했다.
- 전남 담양군협의회(회장 김병윤)는 지난해 12월 5일 라면과 곰탕을 담은 꾸러미를 만들어 관내 저소득 가정 36세대 전달했다.
- 전남 곡성군 곡성읍협의회(회장 황자연), 부녀회(회장 조쌍순)는 지난해 12월 27일 관내 홀몸 어르신과 취약계층 20가구에 생필품을 전달하는 나눔 사업을 전개했다.



전북 · 전남 · 경남

- 전남 구례군부녀회(회장 정연숙)는 지난해 12월 21일 관내 장애인복지관에서 나물무침, 된장국 등을 직접 만들어 재가 장애인 가정에 전달하는 밑반찬 나눔 사업을 추진했다.
- 전남 보성군 조성면부녀회(회장 신주아)는 지난 1월 3일 이웃돕기 성금 100만 원을 면사무소에 기탁했다.
- 경남 진주시 이반성면부녀회(회장 김점이)는 지난 1월 10일 면사무소를 방문해 성금 80만 원을 기탁했다. 성북동협의회(회장 강옥춘)와 부녀회(회장 김현숙)는 지난 1월 4일 관내 저소득층 가정 학생 7명을 선정해 각 20만 원씩 총 140만 원의 장학금을 전달했다.
- 경남 통영시새마을회 산하 경상국립대학교 해양과학대학 새마을 동아리(회장 김태호)는 지난해 11월 26일 청소년수련원에서 아이들동지&과란나라와 '온 마을이 함께하는 추억의 명랑운동회'를 열었다.



- 경남 사천시 남양동협의회(회장 제위규)와, 부녀회(회장 정정순)는 지난해 12월 27일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지역 내 소외계층을 위해 써달라며 이웃돕기 성금 100만 원을 기탁했다.
- 경남 밀양시 청도면부녀회(회장 목영이)는 지난 1월 17일 민족교유의 명절인 설을 앞두고 힘겨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취약계층을 위해 사랑의 성금 50만 원을 면사무소에 기탁했다.
- 문고 경남 거제시지부(회장 김황원)는 지난해 12월 20일 거제시 청소년수련관 청소년방과 후 아카데미 학생들과 독서문화기행 행사를 진행했다. 학생들은 장편소설 '토지'의 배경인 경남 하동군 악양면 평사리에 있는 작가 박경리 문학관과 최참판댁을 방문해 작가 박경리의 삶과 문화세계를 엿보고, 제기차기, 굴렁쇠, 투호놀이 등도 체험 했다.
- 경남 양산시 동면부녀회(회장 김미자)는 2023년 계묘년 새해를 맞아 지난 1월 13일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온누리 상품권 200만 원을 기탁했다.



• 경남 의령군지회(회장 이동기)는 새해 1월 1일 해 뜨는 시각에 맞춰 의령읍 정암 솔바위 일원에서 떡국 무료 나눔(1,000그릇), 소원지 작성, 소망등 달기 등의 '2023 새해 부자 솔바위' 사업을 진행했다.

탄소중립 실천

- 전북 전주시 인후3동협의회(회장 황승일)는 지난 2월 1일 구충목로 일대 상습 불법투기 지역을 중심으로 환경정비활동을 펼쳤다.
- 전남 구례군 광의면부녀회(회장 김영희)는 지난해 12월 18일 생활 속 탄소중립 실천으로 소한마을 위생취약지역에서 환경정화 활동을 전개했다.



- 전남 화순군부녀회(회장 김덕희)는 지난해 12월 6일 화순읍 벽라리 일원에서 깨끗한 전남 만들기 캠페인 및 방치된 쓰레기를 수거하는 환경정화활동을 펼쳤다.
- 경남 창원시 의창구 동읍부녀회(회장 김운순)는 지난 1월 7일 관내 일원에서 환경정화활동을 실시했다.
- 경남 하동군 청암면협의회(회장 강화용)는 지난 2월 7일 생활체육공원 입구 영농폐비닐 집하장에서 영농폐비닐 5톤을 수거하는 환경정화활동을 전개했다.

새마을 통통통

새마을운동중앙회 <새벽종>은 독자 여러분과 활발한 소통을 이어갑니다.



11+12월호 독자 의견 당첨자

김상현

이번 호에서는 '2022년 지구촌새마을지도자대회' 소식을 관심 갖고 읽었습니다. 전 세계에서 활동하는 새마을운동지도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그간의 성과 보고와 노하우도 공유하고 서로의 노고를 치하하는 의미 있는 자리가 되지 않나 싶습니다. 국제사회로부터 농촌 개발의 모범사례로 잘 인정받으며 내년에는 더 많은 나라에 우리의 새마을정신이 잘 전파되어 개도국의 빈곤 퇴치와 사회개발에 많은 기여를 했으면 하는 바람이 듭니다.

박종을

올해 임원이 되어 <새벽종>을 처음 보게 되었습니다. 지난번 연수 받을 당시 '해보자, 할 수 있다'라는 마음가짐을 <새벽종>을 읽으면서 다시금 새기게 되었습니다. 전국에서 봉사하시는 새마을 가족들의 내용들을 꼼꼼히 살펴보았구요. 이를 통해 우리 지역에 맞는 봉사를 찾아 접목시키면 더 좋은 새마을운동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주미

<새벽종> 매거진을 통해서 전국에서 활동하는 새마을지도자님들의 따뜻한 모습과 다양한 소식을 접할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어려움을 당한 이웃에게 먼저 찾아가 가장 가까이에서 돕고 있는 새마을지도자님들께 응원을 보내고 싶고 새마을회의 일원으로 더불어 살아가는 따뜻한 세상이 되도록 노력하는 사람이 되어야겠다고 다짐해 봅니다.

하선연

<새벽종>을 읽으면서 "아직 세상은 따뜻하고, 살만하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부터'라는 작은 의식이 '우리 함께'라는 큰 의식이 되는 것 같네요. 전국의 많은 봉사자들의 마음이 모여 더 살기 좋은 따뜻한 우리나라가 되어가는 것 같습니다. 딱딱하거나 지루해질 수 있는 소식을 새마을 이야기와 MZ 세대 이야기, 여행, 환경 등 다양한 내용과 보기 좋은 디자인으로 알차게 채워주셔서 좋았습니다.



<새벽종>은 독자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기다립니다.

이번 호를 읽고 느낀 점, 좋았던 점이나 아쉬운 점, 바라는 점을 자유롭게 적어 보내주세요.

추첨을 통해 소정의 선물을 보내드립니다.

다시 뛰는 새마을운동



세계와 함께하는 새마을운동

나눔과 돌봄으로 '함께 사는 따뜻한 나라'를 만들고

배려와 존중으로 공동체정신을 회복하며

연대와 협력으로 우리 사회의 상생과 통합에 앞장서겠습니다.